

태안군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자료집 | 2015. 07



제 출 문

태안군수 귀하

본 보고서를 『태안군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의
자료집으로 제출합니다.

2015년 7월



원 장 강 현 수

목 차

제 1 장 발표자료	1
제1절 과업개요	4
제2절 패러다임과 주요 동향	8
제3절 현황 및 농정분석	13
제4절 기본구상	32
제5절 부문별 발전전략	35
제6절 중점전략사업	50
제7절 투자 및 운영관리	63
제 2 장 TF 및 보고 회의록	67
제1절 군수 및 실무자 간담회	69
제2절 1차 실무 TF 회의	72
제3절 2차 실무 TF 회의	78
제4절 3차 실무 TF 회의	83
제5절 중간보고회	88
제6절 4차 실무 TF 회의	93
제7절 5차 실무 TF 회의	97
제8절 최종보고회	102
제 3 장 읍면별 현장조사	107
제1절 고남면	109
제2절 안면읍	113
제3절 근흥면	118
제4절 남면	122
제5절 소원면	126
제6절 원북면	130
제7절 태안읍	134
제8절 이원면	137

제 1 장

발표자료

제1절 과업개요

제2절 패러다임과 주요 동향

제3절 현황 및 농정분석

제4절 기본구상

제5절 부문별 발전전략

제6절 중점전략사업

제7절 투자 및 운영관리

태안군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2015. 07.



목 차

제 1 절 과업개요

제 2 절 패러다임과 주요 동향

제 3 절 현황 및 농정분석

제 4 절 기본구상

제 5 절 부문별 발전전략

제 6 절 중점전략사업

제 7 절 투자 및 운영관리

제 1 절

과업개요

과업개요

> 과업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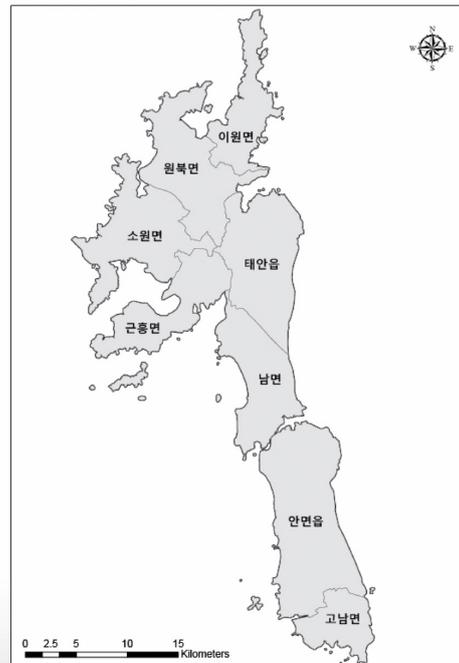
- 태안군 농업·농촌 종합 발전계획

> 과업기간

- 2014. 07. 22 ~ 2015. 07. 21

> 과업의 범위

- 기준년도 : 2014년
- 시간적 범위 : 2015 ~ 2024년
(단기 : 5개년, 중장기 : 10개년)
- 공간적 범위 : 태안군 전역(516.14Km²)



과업목적

> 과업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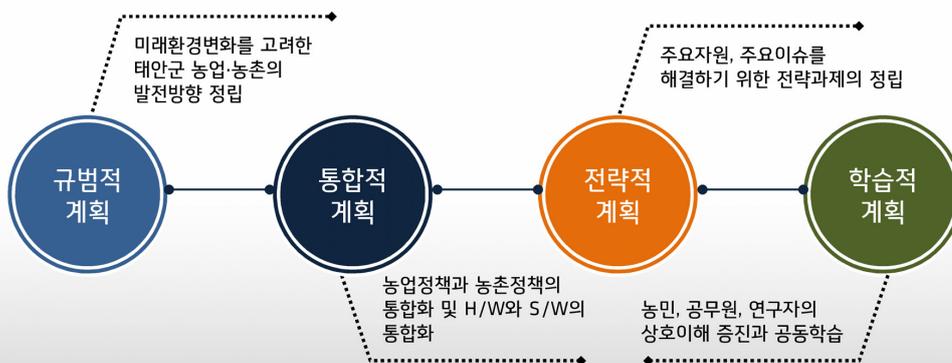
- 개방화·첨단화되는 미래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태안군 농업농촌정책 필요
 - FTA에 의한 시장개방과 영농기술의 과학화,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농업농촌 환경변화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농업농촌정책의 수립 필요
- 투입지향적·하드웨어 지향적 농업농촌정책에서 탈피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
 - 기존의 투입지향적이고 하드웨어 지향적인 농업농촌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하기 위한 새로운 농업농촌정책의 패러다임 도입
- 단편적인 농업·농촌정책에서 농업농촌정책의 통합화와 정책영역의 다양화 추구
 - 기존의 파편화된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을 통합함과 동시에 농촌경관, 바이오에너지, 유기농, 기술혁신 등 농업농촌정책의 영역적 다양성 추구
-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주체 및 자원과 정책네트워크 구축
 -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와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긴밀한 정책네트워크 구축
-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 발굴 및 다양한 전방산업과 가치사슬구조 확립
 - 농업농촌의 미래수요를 고려하여 새로운 가치를 발굴함과 동시에 농업농촌분야의 다양한 전방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가치사슬구조 확립

과업목적

> 과업 목적

-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태안군 농업농촌을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의 모색
 - 본 과업의 목적은 현재 태안군 농업농촌의 실태분석과 농업농촌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정책을 마련하는 것임

> 과업성격



과업내용

> 제1장 과업의 개요

- 과업배경 및 목적
- 과업성격 및 범위
- 과업의 내용 및 추진과정

> 제2장 현황 및 실태분석

- 일반현황
- 농가유형별 특성
- 태안이미지 분석
- 농정예산분석

> 제3장 기본구상

- 패러다임과 주요영역
- 기본전제 및 개발방향
- 비전과 목표
- 미래전략작목의 선정

> 제4장 부문별 발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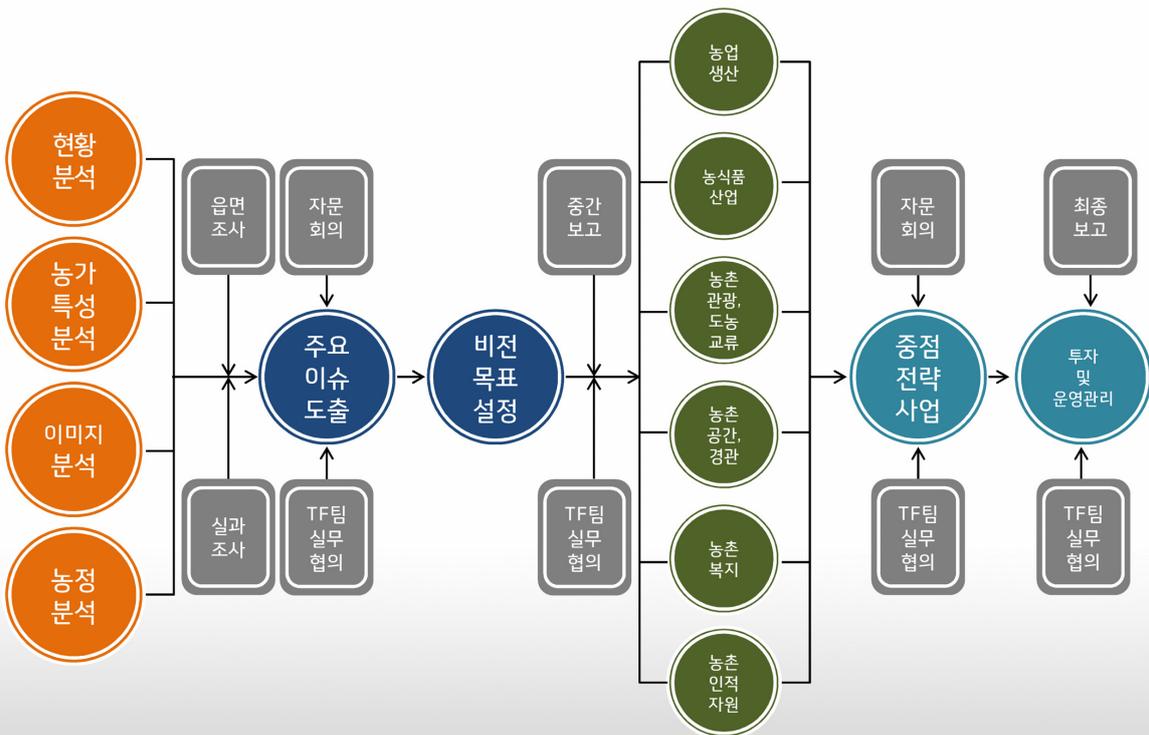
- 농업생산 : 특화품목, 생산기반, 친환경
- 농식품산업 : 6차산업, 로컬푸드, 유통 및 마케팅
-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 농촌관광, 도농교류, 소셜팜
- 농촌공간 및 경관 : 농촌공간, 마을만들기, 생태경관
- 농촌복지 : 보건복지, 교육, 문화여가
- 농촌인적자원 : 지역리더, 귀농귀촌, 주민조직

> 제5장 중점전략사업

> 제6장 투자 및 운영관리

- 투자계획
- 자원확보 및 추진방안
- 성과관리방안

과업의 흐름



과업의 추진과정

군수간담회 및 착수보고



2014.07.29

2014.09.25

읍·면별 현지조사



2014. 09.29 ~ 10.02

2015.01.13

3차 실무TF회의



2015.02.26

2015.03.03



1차 실무TF회의
(TF팀 출범식)



2차 실무TF회의



중간보고회

과업의 추진과정

체험마을 현장조사 및 간담회



2015.03.18 ~ 19

2015.03.19

농촌체험연구회 간담회



2015.03.25

2015.06.04

5차 실무TF회의



2015.06.19

2015.07.17



4차 실무TF회의



해변길 현장조사



최종보고회

실무T/F의 구성

> 실무 T/F팀

	구 분	연구진	담당공무원	주민
농업분과	농업생산	백승우	농산팀장 축산팀장 식량작물팀장	전업농 사무국장 상미원 대표
	농식품산업	김종화	원예특작팀장 소득작물팀장	서해강산영농조합 대표 남면농협 경제상무
농촌분과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이관률	농촌행정팀장 귀농귀촌팀장	체험연구회장
	농촌공간 및 경관	조영재	주택팀장 농촌개발팀장	태안건축사협회장
주민분과	농촌복지	강마야	농촌행정팀장	태안노인회장
	농촌인적자원	강마야	농촌개발팀장 인력육성팀장	중장4리 마을이장 그린리치팜 대표
실무	간사	여민수	농정담당	-

제 2 절

패러다임과 주요 동향

농업·농촌의 주요 패러다임

> 이론적 패러다임

구분	현재	과거
범주	가공, 유통, 마케팅	생산기반 중심
방식	내발적 발전	외생적 개발
성격	지속가능성, 자원 및 자연의 순환	생산성 극대화, 효율성 향상
산업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의 융복합화	농어업
공간	지역내·외부로의 확대(다양한 활동, 영역 포괄)	지역내부
자원	지역연대 강화	대외경쟁력 강화
주체	민관협력파트너십, 주체·지역간 네트워크	행정주도
기술	Soft Power	Hard Power
사업	기존사업, 정책간 연계	신규사업 도출
가치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기능유지 비농업적 가치와 농업적 가치 연계	농어업 생산기능

농업·농촌의 주요 패러다임

> OECD의 패러다임

구분	현재	과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농촌자산의 안정화 미사용자원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등주의 농가소득 농가경쟁력
주요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경제의 다양한 분야 (농촌관광, 제조업, ICT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주요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주요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차원의 공공부문 다양한 지역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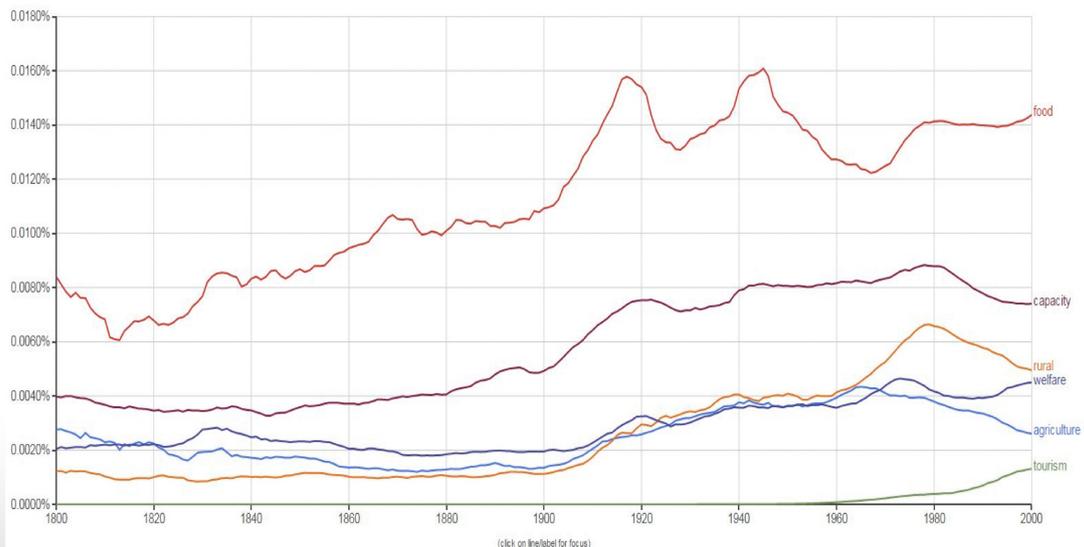
농업·농촌의 주요 패러다임

> 우리나라 패러다임

구분	현재	과거
농정목표	▪ 효율성 및 농업인의 행복추구	▪ 효율성, 경쟁력
정책대상	▪ 지역공동체 중심	▪ 개별경영체 중심
주요내용	▪ 생산과 융복합한 6차산업	▪ 농업, 식품의 분산적 추진
접근방법	▪ 지역특성, 주민참여 및 책임	▪ 중앙정부 주도 획일성

농업·농촌의 영역별 중요도

> 농업·농촌의 영역별 중요도



농업·농촌의 주요 관심대상

› 농업·농촌의 주요 관심대상

세계적	주요 선진국	우리나라
빈부격차	소득보전	농가경영
가치소비	시장평가	식생활교육
-	농촌개발	지역단위 농촌개발
-	유기농	안전한 먹거리
-	연구개발	ICT
-	식품 및 식품안전	로컬푸드
기후변화	기후변화	-
지속가능성	토양건강	-
수명연장	-	고령화
다기능 농업	-	6차산업화
공유	-	협동조합
세계화	-	FTA, 수출활성화, 국제농업협력
질병	(동물복지)	가축전염병
식량위기	-	수급관리, 미래성장동력
저성장	농업환경, 바이오에너지, 바이오기술, 산림, 삶의 질	귀농귀촌, 통일농업, 다문화, 일자리

관련계획 동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 ~ 2017)

주요목표	세부사업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기반 확충 •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 국민영양 및 식생활 교육 강화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BT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 • 지역농업 조직화 및 허브 구축 • 신규 후계인력 양성과 농업경영체 육성 • 농업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 • 식품산업 진흥 및 수출 확대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경영여건 개선 • 사전예방적 경영위험 관리 • 공동체 경영과 새로운 소득원 창출 • 직불제 확대 및 기능 보완 • 에너지 플러스 농업
자조자립역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행복생활권 구축 • 농촌주민 서비스 향상 • 생활계감형 복지 확산 • 농촌복지 사각지대 해소 • 도농상생 기반의 농촌활력 창출
스마트형 농정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향 맞춤형 농정 강화 • 지방농정 강화 • 농정 거버넌스 구축 • 글로벌 협력 강화 • 환경경관보존 및 가치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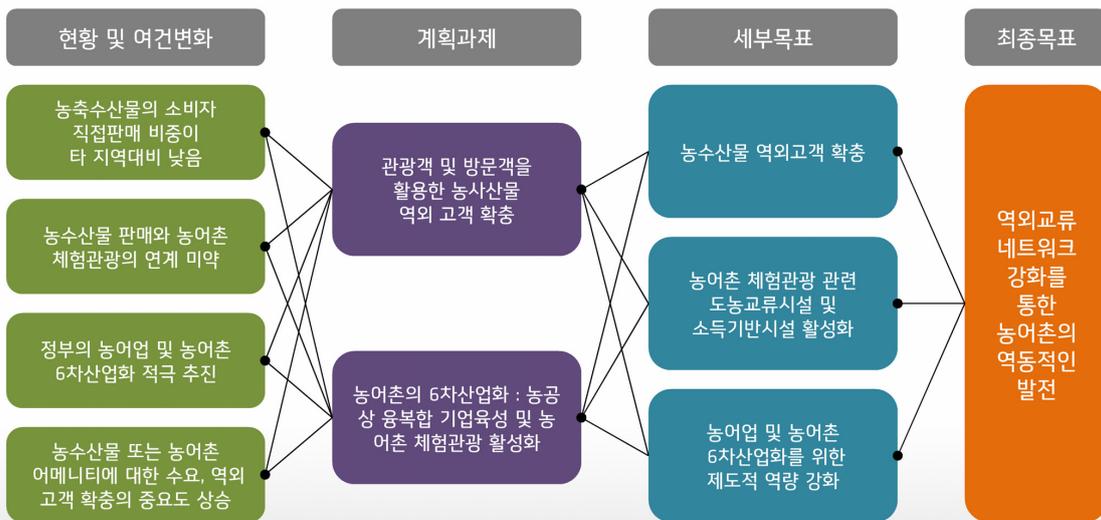
관련계획 동향

› 충청남도의 3농혁신 2030

5대혁신		추진전략	16대 분야 (20대 핵심과제, 64개 중점사업)
농어업	생산혁신	미래지향적 농수축산업 육성 및 착한 먹거리의 생산	친환경·농산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R&D
	유통혁신	농산물 유통선진화 및 농어촌 융복합 산업의 육성	유통, 6차산업, 농식품산업
	소비혁신	소비자가 참여하는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로컬푸드, 소비운동
농어촌	지역혁신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삶터·일터·쉼터 가꾸기	마을만들기, 생산·생활기반, 도농교류
농어업인	역량혁신	미래를 책임지는 인력육성과 농정주체의 확대	인력육성, 농어촌복지, 거버넌스

관련계획 동향

› 태안군 농업·농촌의 미래상-목표와 추진전략



관련계획 동향

> 태안군 농업·농촌의 과제와 주요사업

추진전략	실천과제	주요사업
농수산물 역외고객 확충	• 농수산물의 소비자 직접 판매 제고	• 도로역(Rode Station) 신설 및 운영 • 다양한 경로의 직거래 확대
농어촌 체험관광 관련 도농교류시설 및 소득기반시설 활성화	• 농어촌 체험관광 시설 확충 및 운영시스템 정비 • 농어촌 체험관광 관련 시설에서의 접근성 향상	• 농업 테마파크 조성 • 농어촌 체험마을 활성화 • 농어촌 체험마을 연계도로 정비 • 농어촌 체험관광마을 안내표지판 개량·개발
농어업 및 농어촌 6차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역량 강화	• 농어업·농어촌 6차산업화 전담조직 구성·운영	• 민관합동 코디네이터 기관 조직·운영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농수산물 자원 확충 및 생산기반 구축 • 향토자원 육성을 통한 농어촌 경쟁력 강화	• 친환경 농업 육성을 통한 안전 먹거리 생산 증대 • 바다숲 조성을 통한 수산자원 회복 • 지역 특화 농수산물 육성 및 명품화 사업 • 명품 화훼단지 육성

제 3 절

현황 및 농정분석

태안군의 이미지

> 주요 포털사이트의 태안 연관검색어 : 총 55개

- 다음(20), 네이버(25), 구글(10)

Daum search results for '태안'. The search bar shows '태안' and the search button is labeled '검색'. Below the search bar, there are sections for '통합검색' (Integrated Search), '뉴스' (News), and '사이트' (Sites). The '통합검색' section lists related terms such as '태안 여행', '태안 펜션', '태안군', '태안가족센터', '태안 축제', '서해안가볼만한곳', '태안반도가볼만한곳', '안면도여행코스', '태안꽃길가죽', '태안가볼만한곳', '안면도', '태안빛축제', '서산', '태안 여행코스', '안면도 가볼만한곳', '남해', '물산', '태안.cc', '홍성', '꽃덕', '태안 날씨', '태안주꾸미축제', '태안가족센터추천', '안면도여행', '태안하수목장'.

Naver search results for '태안'. The search bar shows '태안' and the search button is labeled '검색'. Below the search bar, there are sections for '통합검색' (Integrated Search), '뉴스' (News), '지도' (Map), '이미지' (Image), '블로그' (Blog), '여행사전' (Travel Guide), '동영상' (Video), '카페' (Cafe), and '더보기' (More). The '연관검색어' (Related Search) section lists terms like '태안 대하가죽', '안면도 빛축제', '대하축제 안면도', '안면도 대하축제 대하가죽', '신교', '송남태안대하축제', '9월안면도축제', '10월안면도축제', '태안 펜션', '태안 대하축제', '안면도 태안 가볼만한곳', '태안여행', '태안빛축제', '서산 태안 축제', '태안터미널', '태안가는법', '태안군청', '태안역', '대하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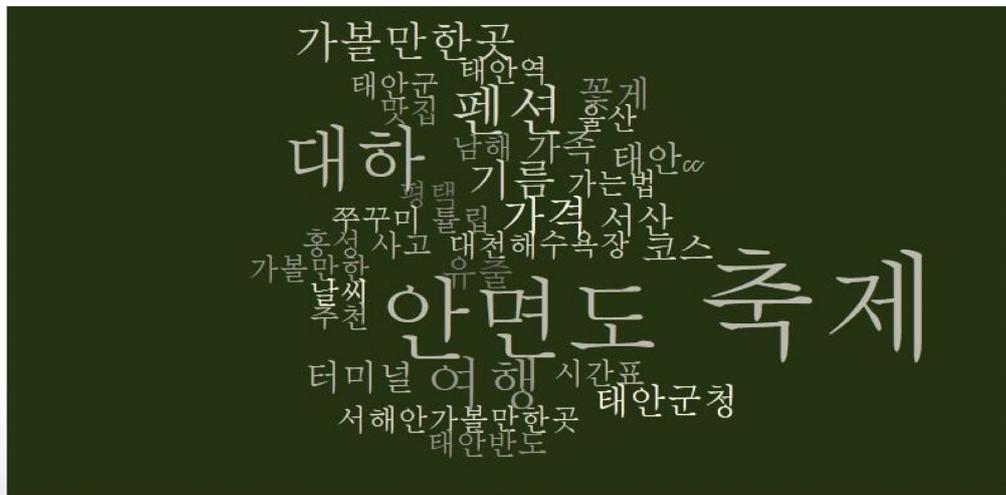
Google search results for '태안'. The search bar shows '태안' and the search button is labeled 'Q'. Below the search bar, there is a table showing search volume and trends for various terms related to Taean.

검색어	최상위	급상승
태안펜션	100	■■■■■
태안축제	90	■■■■■
태안터미널	80	■■■■■
태안맛집	75	■■■■■
태안기름	70	■■■■■
안면도	70	■■■■■
태안안면도	65	■■■■■

태안군의 이미지

> 태안의 상징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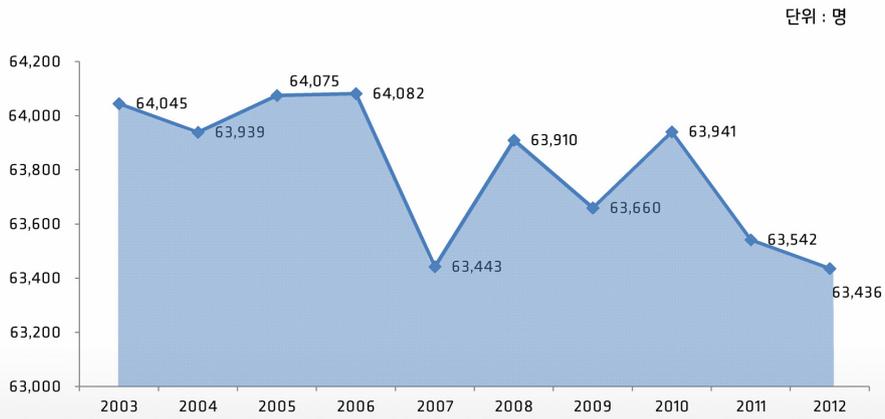
- 주요 포털사이트 키워드 분석결과



일반현황

> 인구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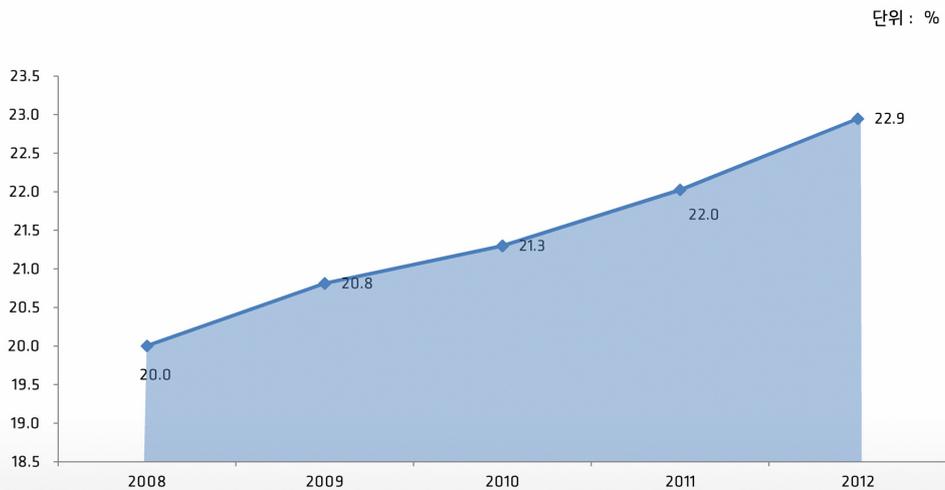
- 인구추이 :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인구



일반현황

> 인구측면(계속)

- 고령화율 : 높은 고령화율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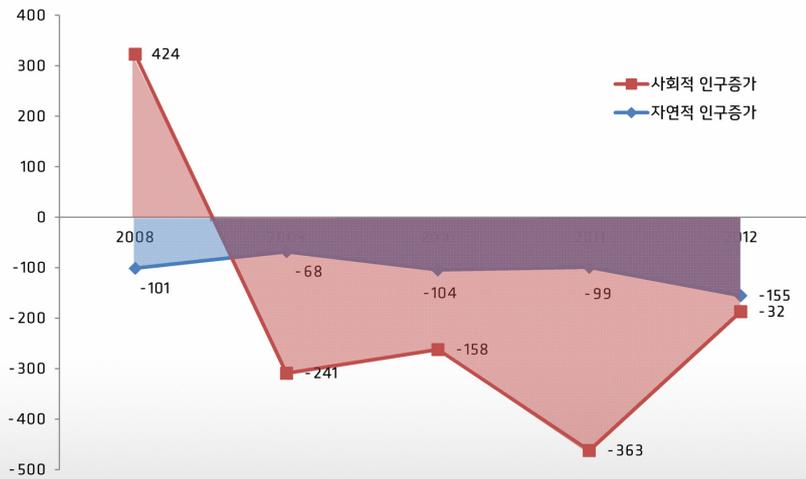


일반현황

> 인구측면(계속)

■ 인구증가 : 자연적 요인에 의한 인구감소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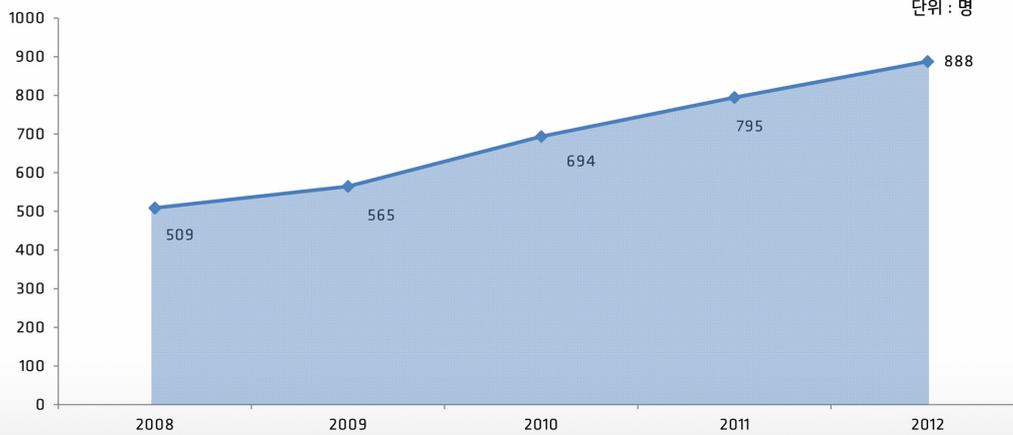


일반현황

> 인구측면(계속)

■ 외국인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의 지속적 증가

단위 : 명



일반현황

> 특화자원 측면

	구분	주요내용	개수
농어업	전통고유기술	마늘두부, 티백형 마늘차, 마늘해당화주	3
	지역특산물	고추, 백합	2
	관광문화상품	황도봉기풍어제, 자염축제, 벗가리마을 등	8
	지역적특성과 결합된 포장 및 기타	갯바람아래, 갯바람아래 마늘이야기, 갯바람(29류) 등	14
농어촌	태안읍	화훼단지, 묘목재배, 생강, 콩, 쌀, 염전, 대해양식장	12
	원북면	마늘, 생강, 소금, 사과, 화훼, 콩, 키토산농법	8
	이원면	나오리	2

일반현황

> 특화자원 측면



[지역 특산물]



[태안장터]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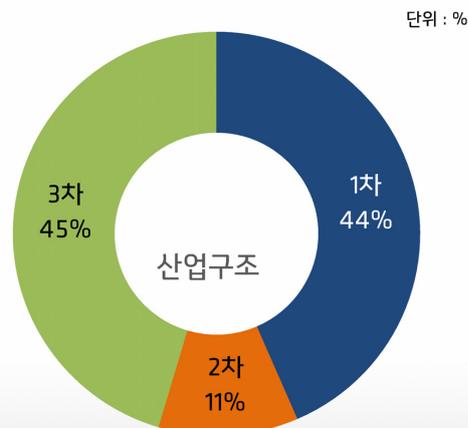
> 다기능 농업

	구분	태안(8,315)	충남(151,424)	전국(1,177,318)
확대	농촌관광	3.73	0.41	0.38
	농가식당	0.61	0.57	0.77
	목초지	0.64	0.52	0.51
심화	친환경 농작물	1.32	2.51	4.96
	직판·직거래	4.17	7.17	9.75
	농산물 가공	0.14	0.51	0.73
재편	농기계 작업	1.97	2.32	1.98
	벼짚활용	58.62	59.14	44.83
	분뇨활용	9.46	13.55	12.78
전체	전체	8.96	9.63	8.52

일반현황

> 산업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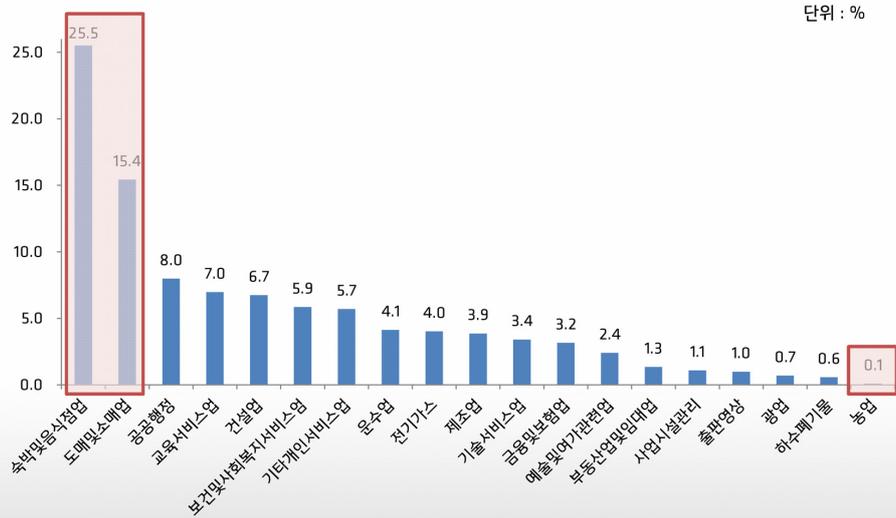
▪ 산업구조 : 1차와 3차 중심의 지역산업구조



일반현황

> 산업측면(계속)

▪ 업종구성 :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이 절대적 비중 차지



일반현황

> 농업과 주요작물의 전후방산업

농업		쌀	
전방산업	후방산업	전방산업	후방산업
음식료품 (0.487697)	음식료품 (0.262249)	정미 (0.903528)	비료 (0.070251)
음식점 및 숙박 (0.239530)	화학제품 (0.226283)	주정 (0.132293)	농림어업서비스 (0.060078)
기타 (0.198515)	석유 및 석탄제품 (0.102971)	일반음식점 (0.061850)	농약 (0.042232)
목재 및 종이제품 (0.100094)	광산품 (0.085922)	기타주류 (0.059505)	원유 (0.040438)
섬유 및 가죽제품 (0.046706)	도소매 (0.069173)	빵 및 곡분과자 (0.047730)	도매 (0.035051)
인쇄 및 복제 (0.03214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66549)	기타 식료품 (0.046004)	나프타 (0.022502)
화학제품 (0.031323)	운수 및 보관 (0.053776)	낙농 (0.044800)	기타기초유기화합물 (0.020182)
기타제조업제품 (0.027373)	금융 및 보험 (0.044210)	가계외소비지출 (0.040534)	가계외소비지출 (0.019741)
사회 및 기타서비스 (0.022180)	제1차 금속제품 (0.039506)	육우 (0.039999)	석유화학기초제품 (0.016809)
공공행정 및 국방 (0.017315)	기타 (0.034755)	기타음식점 (0.032957)	경유 (0.015752)

일반현황

> 농업과 주요작물의 전후방산업(계속)

채소		화훼	
전방산업	후방산업	전방산업	후방산업
파실 및 채소가공품 (0.241444)	비료 (0.135227)	도시토목 (0.008988)	원유 (0.128654)
기타조미료 (0.100513)	원유 (0.072804)	가계외소비지출 (0.005362)	경유 (0.126059)
정류 (0.056379)	농약 (0.064372)	기타건설 (0.003922)	비료 (0.046451)
기타 식료품 (0.043981)	나프타 (0.042704)	도로시설 (0.003554)	플라스틱(차제품) (0.030719)
비알콜성 음료 (0.043594)	석유화학기초제품 (0.032007)	공항시설 (0.002460)	도매 (0.030685)
주점 (0.031090)	기타기초유기화합물 (0.032006)	기타개인서비스 (0.002244)	농약 (0.028546)
일반음식점 (0.029305)	농림어업서비스 (0.030754)	주택건축 (0.001944)	나프타 (0.027519)
국수류 (0.026221)	소매 (0.027588)	농림수산토목 (0.001813)	석유화학기초제품 (0.025933)
가계외소비지출 (0.023673)	도매 (0.026218)	비주택건축 (0.001709)	산업용플라스틱제품 (0.024949)
빵 및 곡분과자 (0.020976)	질소화합물 (0.026138)	연 및 아연광석 (0.001604)	중유 (0.023720)

일반현황

> 공간구조

▪ 태안읍 중심의 단일적 공간구조

비율	태안군									그외지역		
	태안	안면	이원	원북	소원	근흥	남면	고남	소계 (빈도)	소계 (비율)	빈도	비율
소계	8,158	791	74	210	134	60	97	69	9,593	80.6	3,078	25.8
태안	5,165	20	6	6	8	6	4	2	5,217	85.4	1,173	19.2
안면	266	702	0	0	0	0	2	0	970	73.2	360	27.2
이원	270	2	65	1	2	0	0	0	340	73.1	88	18.9
원북	633	0	0	197	0	0	1	0	831	76.2	272	24.9
소원	508	0	0	2	111	0	0	0	621	63.6	320	32.8
근흥	905	6	0	0	8	46	1	1	967	67.6	528	36.9
남면	272	4	0	0	0	2	82	2	362	82.8	78	17.8
고남	138	55	0	0	0	0	0	56	249	26.0	141	14.7

일반현황

> 농촌복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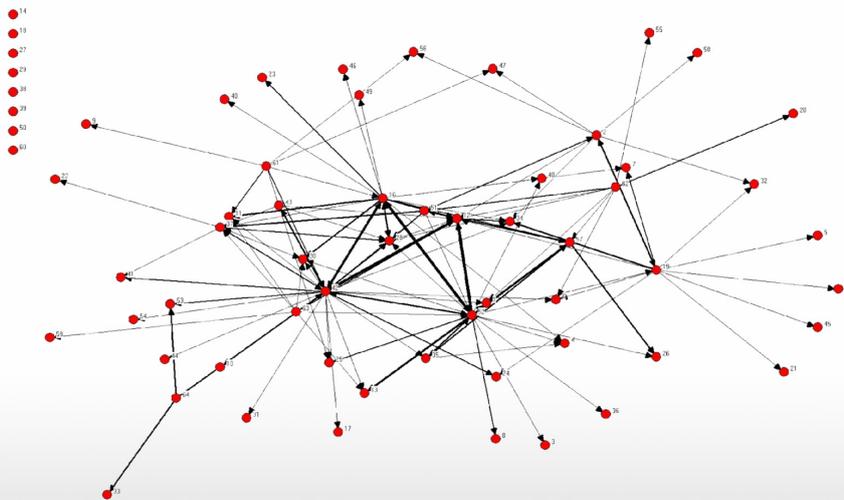
▪ 공공주도 중심의 농촌복지시스템

구분	사이중심성	표준화된 사이중심성
장애인 복지관	355.07	9.09
지역자활센터	219.43	5.62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14.66	2.94
노인복지관	114.06	2.92
군청	70.93	1.82
지역아동센터	62.26	1.59
건강가정지원센터	54.46	1.39
사회복지협의회	26.21	0.67
푸드뱅크	24.50	0.63
자원봉사센터	20.44	0.52
요양시설	14.99	0.38

일반현황

> 농촌복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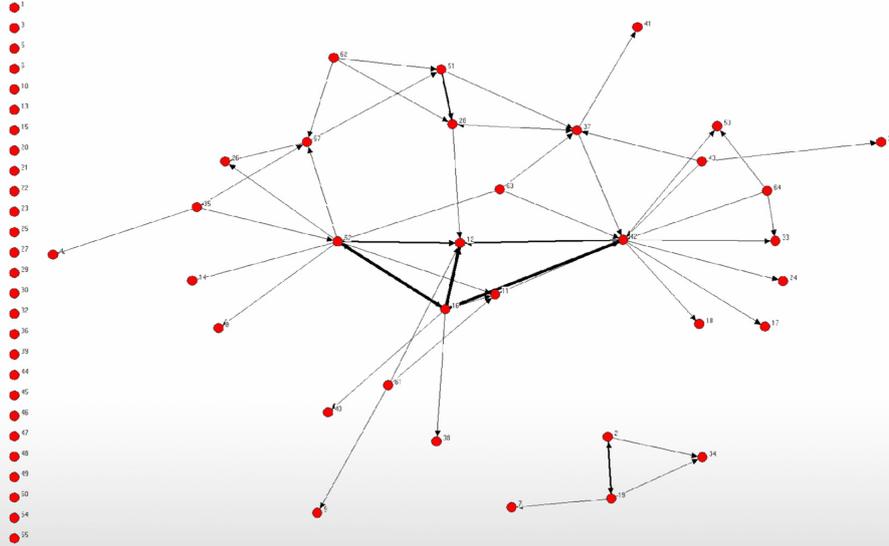
▪ 주요 복지기관의 활동네트워크



일반현황

> 농촌복지기관

▪ 주요 복지기관의 정서네트워크



농가유형별 특성

> 분석자료

- 분석자료 : 농업총조사(2010년)MDSS
- 분석대상 : 태안군 8,315호 농가
- 분석내용 : 농가유형을 소농, 중농, 대농으로 구분하여 태안군 농가실태분석

> 농가특성

- 농산물 판매액은 연간 1천만 원 이하가 다수, 이들의 경작면적은 0.81ha

(단위 : 호, %, ha)

구분		농가수	경지면적
전체		8,315(100.0)	1.46
농산물 판매액	소농(1천만 미만)	5,447(65.5)	0.81
	중농(1~5천 만원)	2,624(31.6)	2.38
	대농(5천만원 이상)	244(2.9)	5.87

농가유형별 특성

› 농가특성(계속)

- 소농은 상대적으로 농외소득의 비중이 높고, 중농과 대농은 농업소득의 비중이 높음

(단위 : 호, %, ha)

구분	전체	소농	중농	대농
농업 수입분임	3,132 (37.67)	1,946 (35.73)	1,074 (40.93)	112 (45.9)
농업 수입이 많음	2,743 (32.99)	1,347 (24.73)	1,274 (48.55)	122 (50)
농업 이외 수입이 많음	2,440 (29.34)	2,154 (39.54)	276 (10.52)	10 (4.1)

농가유형별 특성

› 작물특성

- 특화작물과 재배면적이 높은 작물이 다소 불일치 하고 있음
 - 특화계수가 높은 작물은 달래, 삼나물, 마늘, 땅콩이고, 재배면적이 높은 작물은 논벼, 고추, 마늘, 콩, 고구마 임

순위	특화계수 상위품목	특화계수	재배면적 상위품목	면적(ha)
1	달래(시설)	351.36	표고버섯(접종 본수)	15,050.0
2	삼나물(노지)	67.94	논벼	7,861.6
3	홍금	17.73	고추	943.8
4	마늘	15.66	마늘	913.3
5	땅콩	14.99	콩	777.5
6	화초작물(꽃)-노지	13.16	고구마	417.4
7	화초작물(꽃)-시설	10.64	기타노지작물	358.0
8	약용작물	8.56	기타식량작물(밭벼 포함)	144.1
9	고추	7.64	삼나물(노지)	131.6
10	기타가축	7.12	무	126.8
11	마스캇베리에이	6.61	감자	115.2
12	고구마	6.30	땅콩	105.9
13	산나물	5.55	인삼	84.4
14	콩	4.63	화초작물(꽃)-시설	74.5
15	논벼	3.33	배추	73.3

농가유형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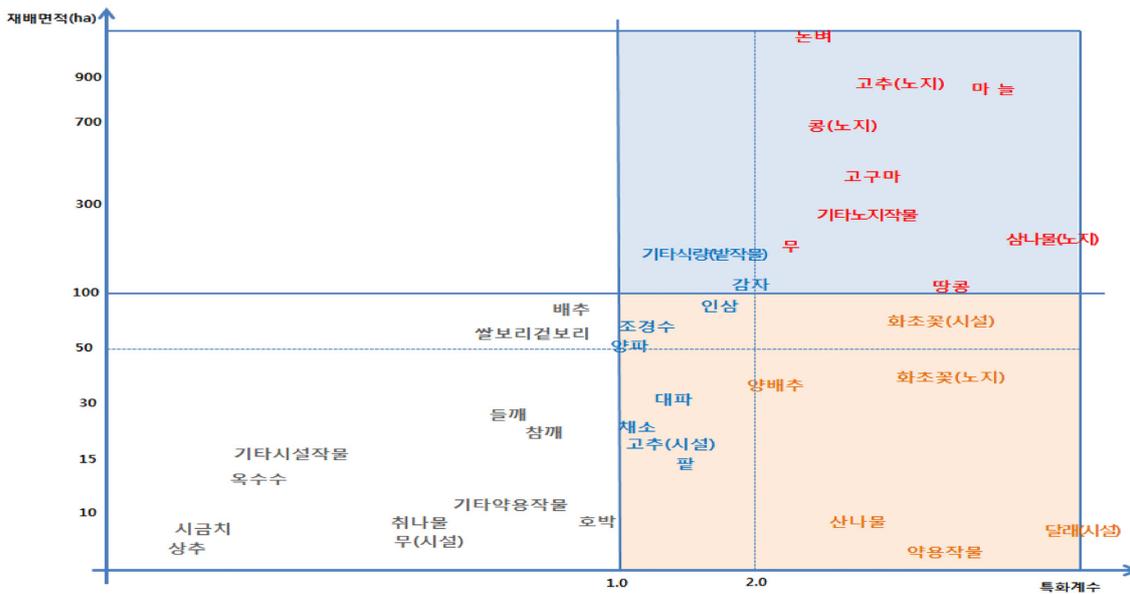
> 작물특성(계속)

- 태안군의 주요 재배작물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약한 실정임
 - 고추, 마늘, 고구마, 화훼 등 주요 재배작물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 수준으로 가격결정권을 확보하기 매우 곤란함
 - 최근 5년간 마늘, 고구마의 재배면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외 작물은 감소하고 있음.

	전국			태안			태안/전국 순위	
	재배농가(천호)	재배면적(천 ha)	호당재배면적(ha)	재배농가(호)	재배면적(ha)	호당재배면적(ha)	농가수	재배면적
논벼	777.5	830.0	1.07	6,280	7,862	1.25	45	40
고추(노지)	315.5	43.4	0.14	4,681	944	0.20	7	5
마늘	132.8	20.5	0.15	4,322	913	0.21	6	9
콩	444.6	59.1	0.13	2,940	777	0.26	68	16
고구마	285.2	23.3	0.08	2,288	417	0.18	40	13
화훼(노지+시설)	8.0	3.4	0.431	306	111	0.36	2	3
달래(시설)	0.2	0.0	0.04	177	8	0.04	1	1
삼나물	2.0	0.7	0.34	456	132	0.29	2	2
땅콩	23.0	2.5	0.11	584	106	0.18	7	6

농가유형별 특성

> 태안군 농산물의 경쟁력



농가유형별 특성

> 영농특성

- 전체 면적의 70%는 자기 토지이고, 30%는 임대 토지인 것으로 나타남
 - 소농과 중농의 경우 자기 토지 비중이 높은 반면, 대농은 임대 비중이 높음

(단위 : ha)

구분		전체	소농	중농	대농
논면적 합계		0.95	0.49	1.64	3.74
보유형태	자기 논	0.64	0.38	1.04	2.09
	남의 논	0.31	0.11	0.60	1.65
밭면적 합계		0.51	0.32	0.74	2.13
보유형태	자기 밭	0.36	0.26	0.52	1.04
	남의 밭	0.15	0.07	0.22	1.10

- 친환경 농작물 재배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은 실정임
 - 중농과 대농은 상대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이 높고, 소농은 낮음

(단위 : 호, %)

구분	전체	소농	중농	대농
친환경작물	110 (1.32)	31 (0.57)	69 (2.63)	10 (4.10)

농가유형별 특성

> 영농특성(계속)

- 소농은 논보다 밭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높음
 - 중농과 대농은 대부분 논과 밭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농은 주로 밭을 보유함

(단위 : 호, %)

구분	전체	소농	중농	대농
논 보유	6,295 (75.71)	3,706 (68.04)	2,380 (90.7)	209 (85.66)
밭 보유	7,618 (91.62)	4,861 (89.24)	2,522 (96.11)	235 (96.31)

- 농가의 조직화가 매우 저조하고, 특히 영농규모가 소규모 일수록 참여도가 낮음
 - 대부분 대농과 중농의 경우 생산자 조직참여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벼와 영농조합 중심으로 생산자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단위 : 호, %)

구분	전체	소농	중농	대농
미참여	6,132 (73.75)	4,404 (80.85)	1,636 (62.35)	92 (37.7)
참여	2,183 (26.25)	1,043 (19.15)	988 (37.65)	152 (62.3)

농가유형별 특성

> 영농특성(계속)

■ 논벼와 채소 및 산나물을 중심으로 재배하고 있음

- 소농과 중농은 논벼와 채소 및 산나물을 중심으로, 중대농은 논벼와 축산을 중심으로 종사함

(단위 : 호, %)

구분	전체	소농	중농	대농
논벼(노지)	4,437 (53.36)	2,832 (51.99)	1,506 (57.39)	99 (40.57)
식량작물(노지)	705 (8.48)	564 (10.35)	132 (5.03)	9 (3.69)
채소·산나물(노지)	2,337 (28.11)	1,704 (31.28)	599 (22.83)	34 (13.93)
특용작물·버섯(노지)	131 (1.58)	79 (1.45)	39 (1.49)	13 (5.33)
과수(노지)	43 (0.52)	13 (0.24)	23 (0.88)	7 (2.87)
화초·관상작물(노지)	99 (1.19)	55 (1.01)	40 (1.52)	4 (1.64)
화초·관상작물(시설)	116 (1.4)	29 (0.53)	72 (2.74)	15 (6.15)
기타작물	200 (2.4)	110 (2.03)	85 (3.24)	5 (2.05)
축산	247 (2.97)	61 (1.12)	128 (4.88)	58 (23.77)

농가유형별 특성

> 영농특성(계속)

■ 농촌관광과 직거래를 중심으로 한 농가의 비농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소농은 농촌관광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면, 중농과 대농은 직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단위 : 호, %)

구분	전체	소농	중농	대농
농촌관광	310 (3.73)	236 (4.33)	67 (2.55)	7 (2.87)
농가식당	51 (0.61)	35 (0.64)	15 (0.57)	1 (0.41)
목초지	53 (0.64)	6 (0.11)	33 (1.26)	14 (5.74)
직판장	74 (0.89)	38 (0.7)	30 (1.14)	6 (2.46)
직거래	279 (3.36)	95 (1.74)	155 (5.91)	29 (11.89)
농산물 가공	12 (0.14)	7 (0.13)	4 (0.15)	1 (0.41)
농기계작업대행	164 (1.97)	32 (0.59)	108 (4.12)	24 (9.84)

농가유형별 특성

› 영농특성(계속)

- 농작물은 농협과 수집상을 통해 주로 유통되고 도매시장의 비중은 매우 낮음
 - 소농은 상대적으로 소비자 직접 판매 비중이 높고, 중농은 농협, 대농은 도매시장과 수집상의 비중이 높음

(단위 : 호, %)

구분	전체	소농	중농	대농
도매시장	212 (2.55)	103 (1.89)	88 (3.35)	21 (8.61)
산지공판장	143 (1.72)	81 (1.49)	50 (1.91)	12 (4.92)
농협, 농업법인	4064 (48.88)	2473 (45.4)	1492 (56.86)	99 (40.57)
정부기관(공공비축제 등)	347 (4.17)	227 (4.17)	112 (4.27)	8 (3.28)
수집상(중간상인, 발떼기 등)	1798 (21.62)	1207 (22.16)	531 (20.24)	60 (24.59)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	17 (0.2)	7 (0.13)	8 (0.3)	2 (0.82)
소비자 직접 판매	962 (11.57)	799 (14.67)	154 (5.87)	9 (3.69)
농축산물 가공업체	238 (2.86)	106 (1.95)	108 (4.12)	24 (9.84)
농축산물 소매상	182 (2.19)	100 (1.84)	73 (2.78)	9 (3.69)
기타(판매없음 포함)	352 (4.23)	344 (6.32)	8 (0.3)	0 (0)

농가유형별 특성

› 주거특성

- 다수의 주택이 건축연도가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으로 주거여건이 불량한 실정임
 - 소농과 중농은 20년 이상 주택의 비중이 높은 반면, 대농은 11~20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 호, %)

구분	전체	소농	중농	대농
10년 이하	874 (10.5)	581 (10.7)	263 (10.0)	30 (12.3)
11~20년	3,051 (36.7)	1,941 (35.6)	996 (38.0)	114 (46.7)
21년 이상	4,390 (52.8)	2,925 (53.7)	1,365 (52.0)	100 (41.0)

- 농가의 주요 교통수단은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임
 - 대농과 중농의 경우 교통수단의 보유비율이 높으나, 소농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임

(단위 : 호, %)

구분	전체	소농	중농	대농
미보유	2,775 (33.37)	2,243 (41.18)	524 (19.97)	8 (3.28)
보유	5,540 (66.63)	3,204 (58.82)	2,100 (80.03)	236 (96.72)

농가유형별 특성

› 주거특성

▪ 상수도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농가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낮음. 대농은 마을상수도 비중이 다른 소농, 중농에 비해 높음

(단위 : 호, %)

구분	전체	소농	중농	대농
상수도	1,864 (22.42)	1,436 (26.36)	387 (14.75)	41 (16.8)
마을상수도(간이상수도)	570 (6.86)	343 (6.3)	185 (7.05)	42 (17.21)
자가(전용)수도	446 (5.36)	263 (4.83)	170 (6.48)	13 (5.33)
없음	5,435 (65.36)	3,405 (62.51)	1,882 (71.72)	148 (60.66)

농정의 주요이슈

› 분석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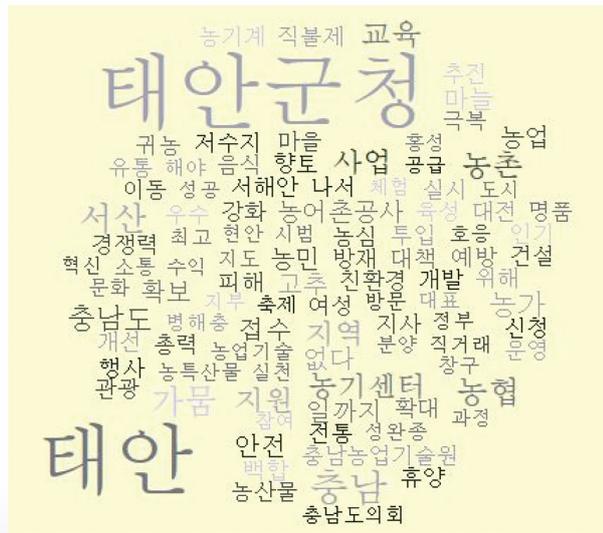
- 충청투데이 신문기사

› 분석방법

- 검색어 : 태안 농업, 태안 농촌
- 검색범위 : 2012 ~ 2014년

› 분석자료

- 총 360건의 신문기사 검색
- 중복기사 70건을 제외한 290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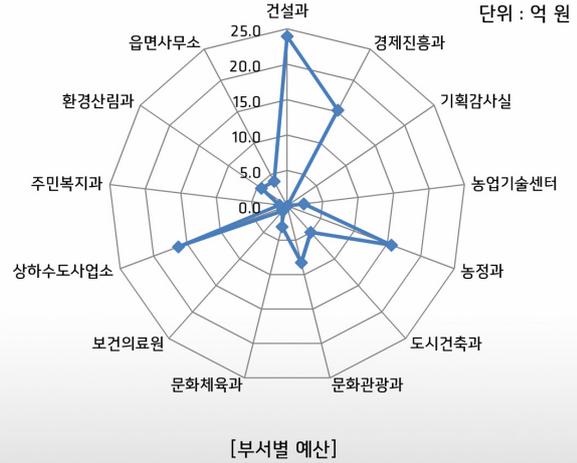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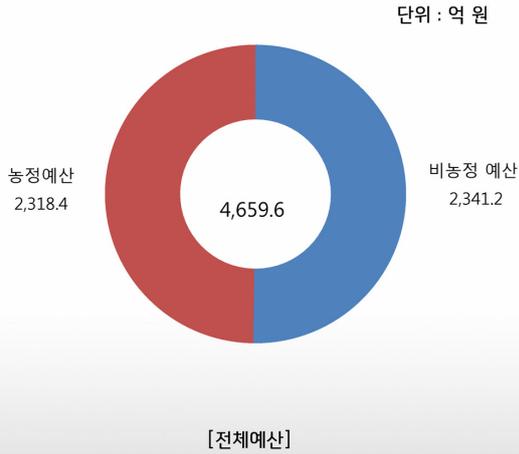
[태안 농업·농촌 연관단어]

농정분석

> 농정예산분석

■ **군정예산에서 농정예산의 비중이 약 50% 내외**

- 농정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경제진흥과의 농정예산 규모가 큼
- 농정예산은 최근 3년, 즉 2013-2015년의 누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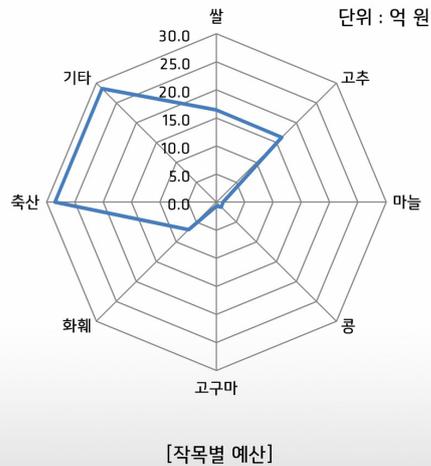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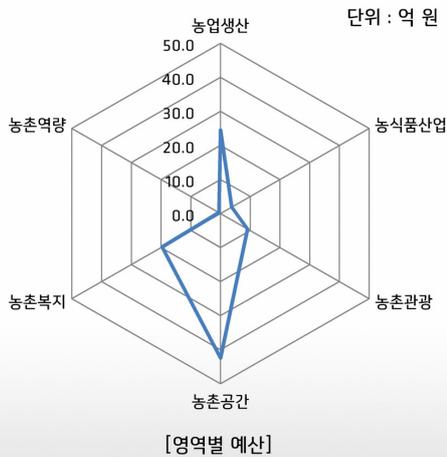


농정분석

> 농정예산분석(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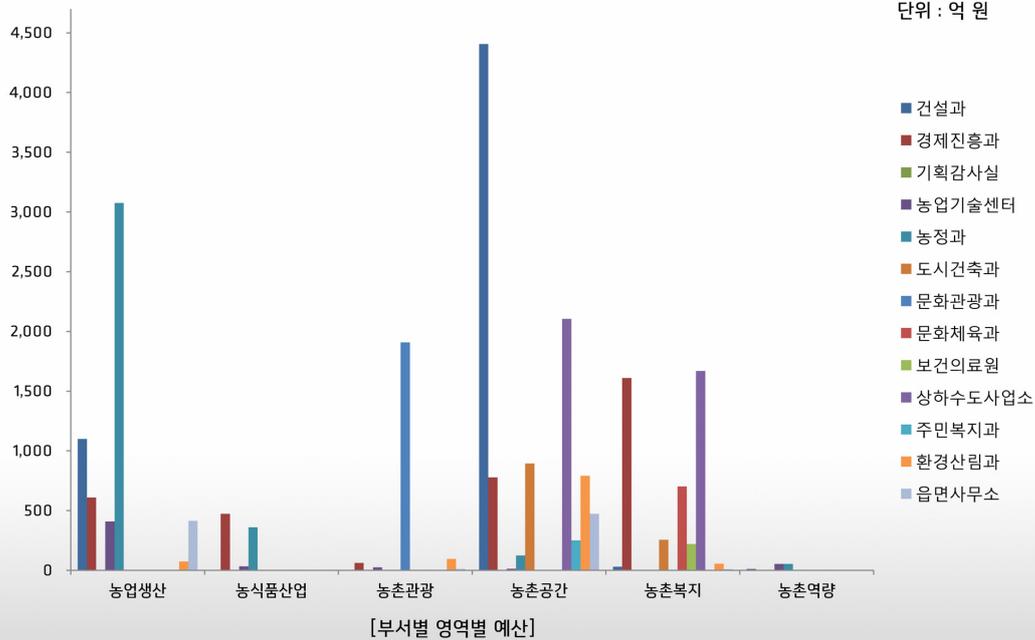
■ **농촌공간과 농업생산 / 쌀과 축산 중심의 농정예산 편성**

- 농식품산업, 농촌관광, 농촌역량부문의 예산의 부족
- 주요 주력작물 및 특화작물에 대한 정책추진 미흡



농정분석

> 농정예산분석(계속)



분석의 종합

> 태안 농업농촌의 장점과 특징을 고려한 차별화된 농정의 추진 필요

- 농업농촌과 관광부문의 연계화
- 유통 및 소비를 고려한 농업생산시스템 구축
- 소농과 중농, 대농의 차별화된 농정
- 농정예산의 통합적 운영 시스템 구축

태안 현황	농가유형별 특성	태안 이미지	농정 특성
인구감소 다양한 특화자원 1차산업 + 3차산업	소농 벼, 채소, 산나물 농촌관광, 직거래	축제 관광 먹거리	실과별 사업추진 농촌공간 쌀 + 축산

제 4 절

기본구상

기본전제

> 기본전제

구 분	현 재	미 래
정책 목표	• 생산성	• 환경성, 다원성
정책 영역	• 농업, 농촌	• 농업+농촌+식품
정책 대상	• 대농	• 대농+소농
정책 성격	• 산업정책, 공간정책	• 지역정책, 통합정책
추진 방식	• 신규개발, 개별추진	• 재활용, 연계추진
지원 형태	• 공공지원	• 민간투자 + 공공지원
참여 수준	• 개인, 지역내부	• 협동, 지역 내·외부

주요 이슈의 도출

> 주요이슈와 개발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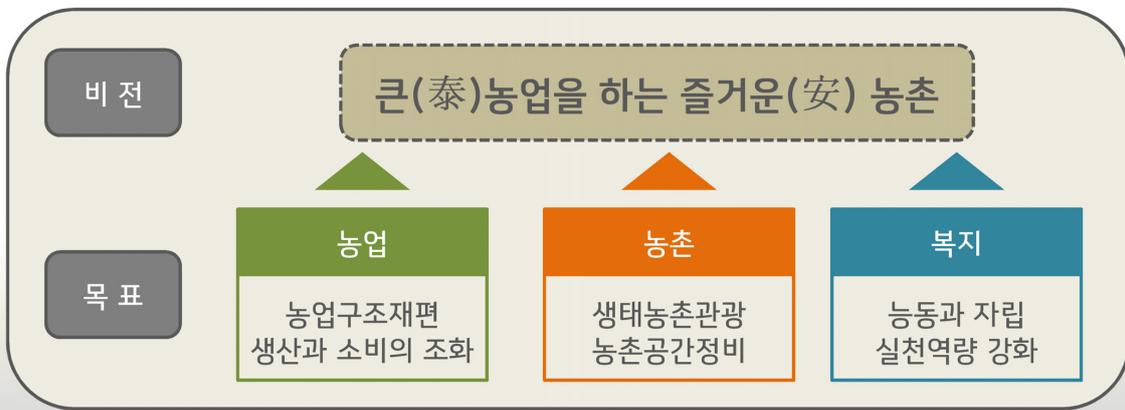
부 문	이 슈	개 발 방 향
농업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을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는가? • 경쟁력 있는 특화작물은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구조재편 • 주력, 특화, 대체작물 육성
농식품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의 가치의 순환, 가치의 증대를 할 수 있는가? • 농산물의 시장경쟁력 확보 전략을 갖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먹거리, 지역소비자 • 산지유통 및 로컬푸드 공존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경관자원 및 농촌마을과 연계되고 있는가?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농촌관광 • 산, 바다, 농촌의 통합프로그램
농촌공간 및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공간의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있는가? • 경관을 포함한 농촌가치가 제고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읍면, 마을)별 기능정비 • 전원적 농촌경관 정비
농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프로그램은 복지수요와 부합하는가? • 농촌복지서비스에 지역자원이 활용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와 공급의 일치 • 지역 일자리와 연계
농촌인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농촌인력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귀농·귀촌인력을 어떻게 지역화 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에 의한 역량 강화 • 귀농·귀촌 인력양성

비전과 목표

> 비전 : 큰(泰) 농업을 하는 즐거운(安) 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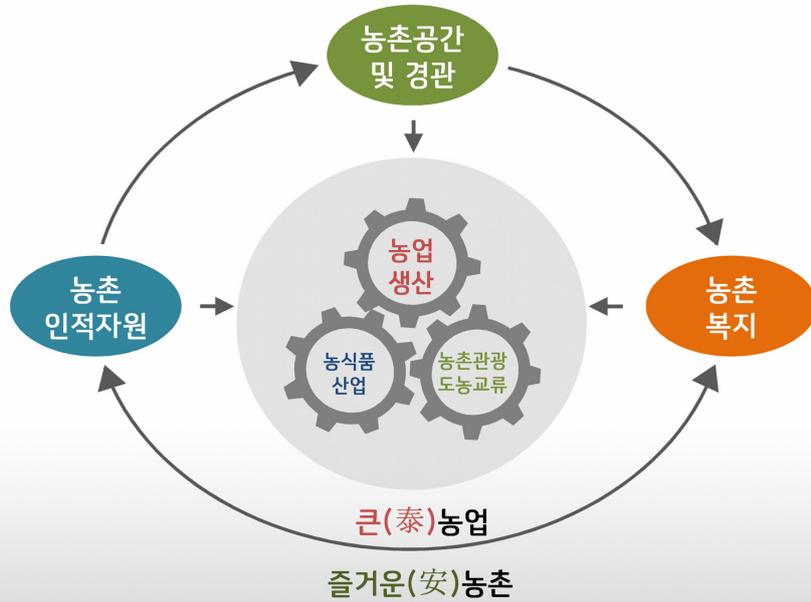
> 3대 목표

- 농업 : 농업구조재편, 생산과 소비의 조화
- 농촌 : 생태농촌관광, 농촌공간정비
- 복지 : 능동과 자립, 실천역량 강화



태안 농업·농촌의 부문별 연계

› 태안군 농업·농촌의 부문별 가치사슬



미래전략작목

› 미래전략작목의 선정

기준	작 목1	작 목2	작 목3
노동여건 (노동력)	논벼	콩(노지)	마늘
토지여건 (토지적합도)	고구마	고추	콩
자본여건 (시설, 농기계)	화훼(시설)	달래(시설)	고추(시설)
기술여건 (기술지도, R&D)	종자(마늘)	종자(화훼)	종자(고구마)
기후여건 (기온상승대비)	감귤류(한라봉)	과실류(무화과)	베리류(오디)
경제사회여건 (경영비, 관광)	조사료(이모작)	경관작물(밀)	경관작물(기타)

제 5 절

부문별 발전전략

농업생산

> 정책환경

국가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쟁력과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 수립 •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 • 농식품 경쟁력 강화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구축 • 농업생산기반 확보 대책 마련 • 농식품 안전시스템 강화
광역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실있는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조 •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농가소득 안정 강조 • 지역 내 자연 및 자원을 활용한 청정산업 육성 • 친환경 농업 및 농산물 생산 인프라 확충
지역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 있는 농어업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육성 추진 •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 농업인 소득 안정화 추진 • 친환경 농업 육성 의지 • 시설원에 고품질 생산기반 육성 •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농업생산

> 현황 및 과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벼 재배면적은 감소하나 비중은 증가 • 콩 재배면적 및 비중 감소 • 고구마 생산 및 비중 증가 • 고추 생산 및 비중 증가 • 마늘 생산 및 비중 증가 • 주요 작물의 증감률은 전국과 유사 • 주요 작물의 소득률 감소 내지 정체 • 지역 내 양념채소연구소 위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자원과 환경자원을 연계한 계획 수립 • 환경변화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농업생산 기반 계획 필요 • 소농의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조직화 계획 필요 • 주력작목 및 대체 작물의 개발 필요 • 미래 에너지 및 융복합의 도입

농업생산

> 기본전제

- 기후변화, 소비트렌드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태안 농업의 미래비전 제시
- 경관농업으로 미래 지향적인 농업자원의 조화로운 활용
- 기후·FTA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30년 태안먹거리 개발
- 고품질·비용절감을 위한 견고한 생산기반 구축
- ICT융·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태안 농산업 육성

> 목표 및 개발방향

목표	태안발전의 핵심 기반이 되는 농업구조개편			
개발 방향	경관농업을 통한 미래형 태안 농업지구 육성	기후, FTA, 소비트렌드 등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30년 태안먹거리 개발	견고한 생산기반 구축	융복합 활용한 첨단 농식품 산업 육성

농업생산

> 주요 사업계획

개발 방향	세부 사업
경관농업을 통한 미래형 태안농업지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농업지구 조성사업 • 경관농업 추진 협의회 조직 • 경관농업 “태안벨리” 구축 • 경관농업지구 기반정비 사업 • 경관농업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 • 경관농업 축제 추진 • 축종 복합지구 조성 • 간척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원 경관지구 조성
환경변화에 대응한 30년 태안먹거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온상승과 해안성 기후에 적합한 소득작물 육성 • GAP인증 농업지구 조성 • 종자산업 육성사업 • 수출화훼단지 육성 • 품목별 특화마을 조성

농업생산

> 주요 사업계획(계속)

개발 방향	세부 사업
고품질 저비용 생산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녘별 경영체 육성 •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체 육성 • 논·밭 생산인프라 확충사업 • 논농업 다양화 생산단지 조성 • 특화작물 공동처리시설 지원사업
ICT 융·복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태안 농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시설 농업단지 조성 • 에너지 절약형 시설채소단지 조성 • 친환경 농축산 순환체계 구축 • 탄소 라벨링 농업지구 조성

농식품산업

> 정책환경

국가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 공급 및 국민영양 강화 •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융복합화 추진 • 생산자가 제값으로 팔고, 소비자는 싸게 사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 조성 • 경쟁력 있는 식품산업 육성 및 적극적인 수출확대 모색 •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광역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와 상생 중심의 농업·농촌 육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 농산물 유통선진화 및 지역순환식품체계(로컬푸드)구축 • 농림어업인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 • 순환과 공생에 입각한 활력 및 경쟁력 있는 육성
지역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농특산물 중심의 농업 및 농식품산업 육성 • 경쟁력 있는 농어촌 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 • 서산·태안 산지유통의 규모화, 전문화 추진 • 역외교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농어촌의 역동적인 발전

농식품산업

> 현황 및 과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작목의 생산구조 및 농협과 산지수집상에 대한 높은 의존도 •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꽃다지」 보유 • 태안군 농산물 수출실적 담보상태 • 태안군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미흡 • 화훼, 천일염, 고추를 중심으로 향토산업 및 6차 산업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화된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과 다양한 판로 확보 필요 • 저수익 또는 적자인 산지유통센터의 새로운 수익창출 노력 필요 • 태안 축산물 유통체계의 합리적 구축 방안 모색 필요 • 공동브랜드 「꽃다지」의 대외 인지도 및 신뢰도 측정 필요 • 지역특화품목에 대한 지역브랜드 창출 필요 • 태안군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필요 •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육성 필요

농식품산업

> 기본전제

- 산지 조직화·규모화를 바탕으로 시장경쟁력 제고방안 모색
- 지역순환과 상생의 태안푸드 체계 구축방안 모색
- 지역브랜드 창출을 위한 6차산업화 육성 필요
- 태안 농산물 및 농식품의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 목표 및 개발방향

목표

생산자와 소비자가 어울리는 경쟁력있는 농식품산업 육성

개발
방향

산지조직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

지역순환과 상생의
태안푸드 체계구축

지역브랜드 창출을
위한 6차산업화 육성

소비자와 소통하는
태안먹거리 창출

농식품산업

> 주요 사업계획

개발 방향	세부 사업
산지조직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 축산 공동마케팅 조직 육성 • 산지유통센터 특화사업 추진 • 지역·관계마케팅 조직체계 구축 •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꽃다지 브랜드 강화 • 유통경로 다변화를 통한 직거래 강화
지역순환과 상생의 태안 푸드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푸드 컨트롤센터 및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 중소농 텃밭공동체 육성사업 •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사업 • 지역상생기업 및 기업리더 육성사업

농식품산업

> 주요 사업계획(계속)

개발방향	세부사업
지역브랜드 창출을 위한 6차산업화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 향토음식 「태안밥상」 개발 • 태안 선푸드 6차산업화지구 조성 • 태안 방목형 축산 6차산업화 추진 • 바닷바람 절임배추·김치 산업화 추진 • 향토자원기반 아이템 발굴·개발 위원회 운영
소비자와 소통하는 태안먹거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 농수산물 생산정보전달 시스템 구축 • 내 고장 농수산물 바로알기 사업 • 방문객과 함께하는 태안 먹거리 축제 개최 • 태안 도심 저농약 농업단지 조성 및 도시농업 실현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 정책환경

국가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관광을 새로운 농업·농촌발전의 모델로 추진 • 농촌체험·관광 고부가가치화 사업 추진 • 산림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의 활성화 추진 • 농촌자원 및 농업유산 관리에 대한 인식 변화 • 농어업박물관 건립 및 농산어촌 가치교육 확대 • 도농상생 기반으로 농촌활력 창출 추진
광역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농어촌을 준비하는 도농상행 공동체 만들기 추진 • 공정팜핑에 기반한 도농 쌍방향적 교류 활성화 •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 • 농업가치 교육 및 농촌 어메니티 활성화
지역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6기의 주요 과제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추진 •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 현황 및 과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관광을 위한 체험마을과 체험농장이 운영되고 있음 • 체험마을과 체험농장이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체험프로그램이 유사해 차별성을 갖지 못함 • 농어촌체험관광연구회 운영 및 농촌체험관광 지역해설사 양성 • 농촌체험현장학습 등 도농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 다양한 지역축제가 도시민을 유치하고 있으나, 여름에 편중되어 있음 • 해변을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해안길이 조성되어 있고, 염전 등 차별화된 자원이 있음 • 계절별로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 농촌관광의 여건이 양호함 • 농촌관광으로 활용가능한 특색적인 생태경관자원의 보유 • 농촌관광은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조성된 체험마을과 체험농장의 활성화 방안 도모 •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인력의 개발 • 농촌관광과 마을개발사업의 유기적 연계 • 생태경관자원 및 지역축제와 농촌관광의 연계성 제고 •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회적 농장의 활성화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 기본전제

- 기 조성된 농촌관광 인프라의 적극적 활용
- 생태경관자원과 농촌관광의 유기적 연계
- 지역민을 1차적 고객으로 타겟팅

> 목표 및 개발방향

목표

농촌과 바다가 공존하는 생태농촌관광의 활성화

개발
방향

농촌생태관광 기반
의 정비 및 네트워킹

태양과 바다를
주제로 한
블루투어리즘 도입

농촌관광센터의
설립 및
프로그램 개발

농촌생태관광의
제도기반 정비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 주요 사업계획

개발 방향	세부 사업
농촌생태관광 기반의 정비 및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생태관광기반의 전수조사 및 모범사례 발굴 • 농가시설 DB구축 및 농가민박 활성화 • 교육농장으로 기능 고도화 • 치유농장 및 치유의 숲 조성 • 농촌생태관광 민간조직의 컨설팅 및 교육훈련 • 주말농장 및 체험마을의 연계 조성
태양과 바다를 주제로 한 블루투어리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농촌+바다 팸투어 활성화 • 썬크루즈 해안길로 특성화 및 야외 활동공간 조성 • 안면승을 테마로 한 바닷가 캠핑장의 조성 • 염전과 생태해양자원을 활용한 블루투어리즘 활성화 • 푸드투어리즘 코스의 개발 및 농가레스토랑의 활성화 • 농촌 및 해안을 무대로 한 야외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운영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 주요 사업계획(계속)

개발 방향	세부 사업
농촌관광센터의 설립 및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블루 농촌관광센터의 설립 •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도농교류 프로그램의 평가 및 컨설팅 수행 • 도시민을 위한 주말휴양프로그램의 운영 • 도농주체 간 자매결연 확대 및 상호방문 • 도농교류 경진대회 개최
농촌생태관광의 제도기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체험관광 포털사이트의 활성화 • 농어촌 관광휴양지구의 지정 및 농촌생태관광 조례 제정 • 도시민을 위한 귀농귀촌강좌 개설 • 농촌생태관광아카데미의 개설 및 운영 • 도농교류 관련업무의 통합적 운영시스템 구축 • 규제개선 및 인센티브 제도의 발굴

농촌공간 및 경관

> 정책환경

국가차원

- 농촌지역의 상향식 개발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 농촌마을의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체계 도입
- 농촌의 낙후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마을 리모델링 추진
- 농업·농촌의 유산 발굴 및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도 도입
- 농촌 경관 및 어메니티에 대한 관심 증대

지역차원

- 주민주도 내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진행
-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을 통한 지역발전의 기회와 여건 우수
- 유사한 테마의 지역개발로 인한 지역 간 경쟁심화
- 농촌마을의 과소화 및 낙후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수요 증가 전망
- 태안군의 우수한 자연생태 및 경관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정책수요 증가 전망

농촌공간 및 경관

> 현황 및 과제

현황

- 태안읍을 제외한 모든 읍·면에서 인구감소 추세
- 고령화 현상의 지속적인 심화
- 주택보급률은 높으나 주택 노후도는 열악
- 상수도 보급률 및 도로포장률 또한 열악한 실정
-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실적은 미흡
-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통한 역량별 마을육성 도모
- 농촌지역 경관 및 어메니티 자원의 보존 및 활용 정책은 미흡

과제

-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을 통한 주민주도의 내발적 발전 도모
- 농촌지역개발사업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농촌마을 육성
- 낙후된 농촌지역 생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 농촌지역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
- 경관 및 어메니티 자원의 재발견을 통한 농촌활성화 도모

농촌공간 및 경관

> 기본전제

- 내발적 발전역량 강화 및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
- 마을역량과 실태에 맞는 맞춤형·단계별 육성
- 농촌가치 재발견을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
- 지속적인 농촌공간 및 생활환경의 개선
- 읍면별 자원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 추진

> 목표 및 개발방향

목표

내발적 발전과 농촌가치 재발견으로 활력 있는 농촌공간 창출

개발
방향

내발적
지역발전의 도모

농촌공간의
재편

농촌 경관가치의
재창출

읍면별 농촌
특화발전 도모

농촌공간 및 경관

> 주요 사업계획

개발 방향	세부 사업
내발적 지역발전의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군 희망마을 만들기 • 마을만들기 소규모 선행사업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주민조직 활성화 • 농촌마을 자립 활성화 사업 • 농촌마을 공동문화·복지사업 • 농촌마을 경제(체험·소득)사업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
농촌공간의 재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마을 재편정책의 도입 • 농촌마을 리모델링 및 빈집정보센터 운영 • 농촌 생활환경 개선 • 신규마을 조성 • 한계농지 자원화

농촌공간 및 경관

> 주요 사업계획(계속)

개발방향	세부사업
농촌 경관가치의 재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단위 경관계획 수립 • 주민주도의 경관가꾸기 • 농촌마을 환경(경관·생태)사업 • 경관·생태 직접지불제의 확대 도입 • 농어업 유산 발굴 및 육성 • 경관 리노베이션(Renovation)사업 추진 • 경관벨트 지정 및 관리
읍면별 농촌 특화발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읍) 태안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 (태안읍) 로컬푸드 전통시장 정비 • (안면읍) 농어상휴(農漁商休)연계 추진 • (안면읍) 다양한 주민커뮤니티 육성 및 활성화 • (고남면) 영목항 미항 정비 • (고남면) 랜드마크 조성 및 축제 육성 • (남면) 체험관광 통합운영 기반 구축 • (남면) 농산물 직판장 조성 및 운영 • (근흥면) 도서관거점지역 육성 • (근흥면) 수산물 직판장 조성 및 운영 • (소원면) 해안-산악 스포츠 메카 육성 • (소원면) 귀농·귀촌 거점센터 조성 및 운영 • (원북면) 경관생태 테마관광 기반 조성 • (원북면) 기초생활환경 정비 및 농촌재생 • (이원면) 체재형 주말별장 육성 • (이원면) 만대마을 문화예술 축제 육성

농촌복지

> 정책환경

복지수요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대상자의 자조, 자립, 협력 강조 • 복지대상자의 다양화(아동, 청소년, 노인, 다문화가정, 여성, 취약계층=농촌노인 등) • 생애주기형, 복지대상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공급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별 고른 복지인프라 구축 • 효율적인 복지전달 및 공급체계 구축 • 복지공급 유형의 다양화(보건, 복지, 의료 →문화, 여가, 교통, 주거환경까지 확대)
정책 및 주체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연계협력 네트워크 강화 •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 일치 강조 • 일방적인 시혜복지 개념에서 사회안전망이라는 자립, 자활 개념으로 복지인식의 변화 (복지의 범위 : 교육, 보건, 의료, 주거, 교통, 환경, 사회복지, 문화, 여가, 지역사회, 참여)

농촌복지

> 현황 및 과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병의원 이 주요 읍면에 집중 분포됨 • 인구당 의사 또한 매우 낮은 수준 • 재가 노인 복지시설 전무 • 농촌지역 문화 및 여가기반의 절대부족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미흡 • 지역주민의 수요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족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별 농촌주민수요에 ▶ 부응하는 균형적인 복지정책 필요 • 다양한 수요에 맞춘 농촌 복지서비스 통합정책 시급 • 읍면별 마을단위까지 침투하는 복지서비스 재정비 및 확충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공급체계로 복지정책 효율화 달성 • 부족한 재정여건 한계극복을 위한 농촌복지정책 추진전략 • 지역 내 전주체가 참여하는 복지공급 주체의 다양화

농촌복지

> 기본전제

- 농촌주민 자립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농촌주민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공급체계 구축
- 균형적(수급일치) 복지서비스 달성 및 참여주체의 다양화

> 목표 및 개발방향



농촌복지

> 주요 사업계획

개발 방향	세 부 사업
<p>자립할 수 있는 맞춤형 농촌복지서비스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아이돌봄 시스템 확충사업 • 귀농, 귀촌, 귀향인 안정적 정착생활 지원사업 • 마을별 경로당 활용한 농촌노인 및 취약계층 공동급식사업 • 독거노인 공동생활소 및 가사교육서비스 지원사업 • 농촌지역주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 해안길 코스를 중심으로 하는 농촌지역 노인일자리창출사업 • 지역특산물 활용한 여성노인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마을별 공동두레농장 운영사업 • 읍면별 은퇴농장 운영사업
<p>적극적, 능동적, 체계적 농촌복지공급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 농촌지역 응급의료환자 이송체계 구축사업 • 거점별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사업 • 농촌주민 농한기집중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 • 찾아가는 농촌지역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시스템 확충사업 • 농촌노인 보건의료 방문지원서비스 사업 • 마을단위 수요자응답형 버스 및 택시운영 사업 • 로컬푸드 참여농업인을 위한 순환버스 운행사업

농촌복지

> 주요 사업계획(계속)

개발 방향	세 부 사업
<p>민간과 공공간 복지네트워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중심의 복지안전망 구축사업 • 농촌 자살예방캠페인 및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사업 • 건강한 농촌문화복지 환경조성 지원사업 • 100세 시대, 노인이 즐겁게 살 수 있는 문화공간의 창출 • 종교단체의 농촌 취약지역 복지활동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 자원봉사센터 기능강화 및 거점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민간 사회복지사 자매결연 지원사업
<p>복지인프라와 소프트웨어간 균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별 농촌 이동복지관 운영사업 • 읍면별 보건지소 및 진료소 기능 강화 지원사업 • 읍면별 마을주치의제 지원사업 • 마을버스 승강장 리모델링 지원사업 • 농촌어르신 마을회관 문화여가 복지 프로그램 운영 • 읍면별 작은도서관 조성 확대 지원사업 • 읍면별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사업 • 읍면별 문화인프라를 통한 프로그램 보급사업 • 읍면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농촌인적자원

> 정책환경

<p>농업인 역량강화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소득향상을 위한 기초교육 역량강화 •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적자원과 연계하여 행복한 농업인, 인권향상, 전문성 강조
<p>농촌개발 역량강화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지역개발사업 기획·추진에 있어 마을리더·주민·지자체 등 지역주체 주도역할 증대 • 농촌지역리더 및 농촌지도자 집중양성을 위한 추진과제 다수 • 귀농·귀촌·귀향인 등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복원
<p>지역 내 주체별 역량강화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관련 주체만으로 발전한계가 있기에 다양한 주체간 결합 필요 •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 등이 새롭게 대두 •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간 협의체, 네트워크, 협치기구,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공동체 강조

농촌인적자원

> 현황 및 과제

<p>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화, 전문화된, 그리고 젊은 농업농촌 인력의 감소 • 지역리더 중심의 단편적 역량강화사업 추진 및 한정된 지역주체의 문제 • 외부의 이주민과 농촌주민의 교류 미흡 및 외부유입역량의 활용 미흡 • 공공 주도의 일방적 교육프로그램으로 참여주체의 자발성 미흡
<p>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농촌과 관련된 다양하고 자발적 조직 결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복원 필요 • 고령화, 부녀화, 감소화 추세 속에서 농촌주민의 역량강화 방법 모색 필요 • 농촌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구체화 추진방법 모색 필요 • 귀농·귀촌·귀향인 및 지역기업 역량과 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와 역량강화 방법

농촌인적자원

› 기본전제

- 농업인의 전문성과 후계인력양성 지원 역량집중
- 지역개발의 질적, 양적 측면 저변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 다양한 주체간 협의체 시범운영을 통한 역량강화

› 목표 및 개발방향

목표

공동체복원을 위한 지역역량강화

개발
방향

농업인 전문성 함양과
후계인력 역량강화

공동체복원 기반조성 위한
농촌지역리더 역량강화

행정, 일반주민, 농업, 농촌
관련주체 간 협의체 구성

농촌인적자원

› 주요 사업계획

개발방향	세부사업
농업인 전문성 함양과 후계인력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농업인력육성 지원사업 • 농업인 교육관 건립 지원사업 • 품목별 연구회 및 작목반 집중역량강화 지원사업 •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 생활개선회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 여성농업인 인력육성 및 교육 지원사업 • 6차산업화 농업인리더육성 지원사업 • 농산물가공 전문인력양성교육 지원사업 • 여성농업인 및 다문화가정 역량지원센터 설립사업 • 농촌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강화 지원사업
공동체복원 기반조성 위한 농촌지역리더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업 핵심리더 평생교육 지원사업 • 마을지역자원 해설가 양성 지원사업 • 마을별 자발적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 •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실화 지원사업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센터운영 지원사업 • 이주기업인 농어촌 재능기부 활동 지원사업 • 귀농·귀촌·귀향인 및 이주자 적응과 활성화 사업 • 귀농·귀촌·귀향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 귀농·귀촌·귀향인 중간지원조직 운영사업

농촌인적자원

> 주요 사업계획(계속)

개발방향	세부사업
행정·일반주민· 농업, 농촌관련주체간 협업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학습 자치학교 조성사업 • 전문가 포럼의 활성화와 지원 확대사업 • 부문별 민관합동 전담조직 구성 및 마을별 멘토제 운영사업 • 민관협치 기구 구성 및 시범운영사업 • 외부지원금 활용을 위한 농업농촌 분과위원회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범사업 • 농업·농촌관련 자료종합시스템 구축사업 • 우리지역 바로알기 축제 및 대회 •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현장행정 강화 지원사업

제 6 절

중점전략사업

중점전략사업

› 부문별 중점전략사업

구분	목표	중점 전략사업	예산(백만 원)
농업생산	농업구조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생태지구 조성 특화, 주력, 대체작물의 전략적 육성 토종종자 육성 및 활성화 저투입·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62,000
농식품산업	생산과 소비의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다지 브랜드 강화 태안푸드 및 학교·공공급식 활성화 태안 썬푸드 6차산업화지구 조성 	26,400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생태농촌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생태관광 기반의 전수조사 및 DB 구축 농촌관광휴양지구 조성 그린+블루 농촌관광센터 설립 	12,100
농촌공간 및 경관	농촌공간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경관 리노베이션(Renovation) 프로젝트 농어상휴(農漁商休)연계 프로젝트 	12,400
농촌복지	능동과 자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공동두레농장 운영 농촌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시스템 정비 방방곡곡, 구석구석 문화공감사업 	10,550
농촌인적자원	실천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인 및 신규영농인력 육성 태안군 농업회의소 구성 및 운영 농업농촌포럼 및 농촌역량강화 농업농촌 종합 DB시스템 구축 	15,800

농업생산

› 농업생태지구 조성

▪ 사업개요

구분	태안생태경관 농업지구조성	거버넌스형 생태농업 추진위원회 운영	생태체험벨트 "태안벨리" 조성사업
사업위치	태안군 일원	8개 읍면	태안군 일원
추진주체	생태농업추진위원회	민·관 합동	민·관 합동
추진일정	2016 ~ 2019년	2016 ~ 2019년	2016 ~ 2025년
사업량	1식	1식	1식
소요예산 (백만 원)	500	1,500	1,000

▪ 기대효과

- 친환경 농업육성과 해양관광자원의 복합적인 활용으로 농촌지역사회에 활력 제공
- 계절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방문객의 연중 유치가 가능하여 4계절 생태체험 관광시스템을 구축
- 고령화, 부녀화되는 농촌 노동력절감 및 안정적인 소득확대 가능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대하여 생산부터 가공, 판매, 관광이 가능한 지역개발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보전하여 효율적인 농지의 이용관리 및 계획적인 농지관리가 가능

농업생산

› 농업생태지구 조성



농업생산

› 특화·주력·대체작물 전략적 육성

▪ 사업개요

구분	농업 다양화 생산단지 조성사업	주요작물 특화마을 조성 (고추, 고구마, 마늘)	대체작물 시범사업단지 조성
사업위치	읍면지역	8개 읍면	태안군 일원
추진주체	농업인	마을조직	농업인
추진일정	2016 ~ 2019년	2016 ~ 2025년	2016 ~ 2019년
사업량	1식, 3개소	1식, 12개소	1식, 10개소
소요예산 (백만 원)	6,000	9,000	2,000

▪ 기대효과

-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공용 쌀 재배로 경쟁력 향상 및 쌀 생산기반 유지 가능
- 공동사업을 통한 주력, 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 대체작목의 시범사업 보급확대
- 주요 작물 특화마을을 중심으로 품종개량, 주산지조성, 신기술보급 확대가 용이함
- 대체작목의 기술정립 및 파급이 용이하여 경쟁력 열위 작목의 조기 대체 가능
- 대체작목의 발굴로 태안 태안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및 농가소득 증대 가능

농업생산

> 토종종자 육성 및 활성화

▪ 사업개요

구분	토종종자 지리적표시 등록사업	토종종자 육성단지 조성	토종농산물 생산·유통·가공 활성화 사업
사업위치	태안군 일원	읍면지역	태안군 일원
추진주체	태안 종자연구소	선도 농업인	민관협의기구
추진일정	2015 ~ 2019년	2016 ~ 2025년	2015 ~ 2019년
사업량	1식	1식, 10개단지	1식
소요예산 (백만 원)	2,500	5,300	1,600

▪ 기대효과

- 태안 고유의 토종 종자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토종종자 확보 및 보존 가능
- 토종 종자산업 육성으로 태안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태안 지역 소비자 인지도 향상
- 토종 종자의 육성으로 태안지역의 부존자원 활용이 극대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
- 지역 특화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태안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 생태관광의 활성화 가능
- 토종종자의 보존 및 육성으로 농업 생산분야 새로운 소득자원으로 활용 가능

농업생산

> 저투입·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 사업개요

구분	에너지절약형 시설채소단지 육성	친환경농축산 순환체계구축	농축산물 안전관리 기반구축 사업
사업위치	태안군 일원	태안군 일원	태안군 일원
추진주체	시설채소농가	축산농가	농업인
추진일정	2015 ~ 2019년	2015 ~ 2025년	2015 ~ 2025년
사업량	1식	1식	1식
소요예산 (백만 원)	3,000	4,500	3,300

▪ 기대효과

- 태안 농업에 대한 청정 이미지 제고로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
- 환경과 조화된 자원순환형 농업으로 에너지절감, 비용절감으로 경쟁력 향상 및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 태안 농업 환경 보존과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의 구축
- 안전 농축산물의 생산 및 공급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 구축

농식품산업

> 꽃다지 브랜드 강화

▪ 사업개요

구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산지유통센터 특화사업 추진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강화	ICT를 활용한 브랜드 인지도 강화
사업위치	태안군 일원	태안읍, 안면읍	태안군 일원	태안군 일원
추진주체	태안군, 농업인단체	지역농협	태안군	태안군
추진일정	2016 ~ 2025년	2016 ~ 2025년	2016 ~ 2025년	2016 ~ 2025년
사업량	1개단체	3개소	1식	1식
소요예산 (백만 원)	500	1,500	100	100

▪ 기대효과

- 마을 태안군 농산물 시장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가
- 태안군 공동브랜드 “꽃다지”를 통한 태안군 대외인지도 향상

농식품산업

> 태안푸드 및 학교 공공급식 활성화

▪ 사업개요

구분	태안푸드 컨트롤센터 운영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사업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사업위치	태안군 일원	태안읍, 안면읍	태안군 일원	태안군 일원
추진주체	태안군, 농업인단체	태안군(위탁업체)	태안군(위탁업체)	태안군(위탁업체)
추진일정	2016 ~ 2025년	2016 ~ 2025년	2016 ~ 2025년	2021 ~ 2025년
사업량	1개소	25개소	1개소	1개소
소요예산 (백만 원)	1,000	11,000	4,300	1,200

▪ 기대효과

- 태안군 농수산물의 「지산지소」, 「로컬푸드」를 통한 선순환 경제 실현
- 지역주민 및 미래세대와 함께 하는 지역 중심형 농정 실현

농식품산업

› 태안 씬푸드 6차산업화지구 조성

▪ 사업개요

구분	태안 씬푸드 6차산업화지구 조성	태안 향토음식 “태안밥상”개발	태안 방목형 축산 6차산업화 추진	바닷바람 절임배추·김치 산업화
사업위치	태안군 일원	태안읍, 안면읍	안면도	해안지역
추진주체	태안군, 농업인단체	태안군(시민단체)	태안군, 기업	태안군, 농업인단체
추진일정	2016 ~ 2018년	2016 ~ 2025년	2020 - 2025년	2016 - 2020년
사업량	1개소	1식	1개소	1개소
소요예산 (백만 원)	3,000	200	2,500	1,000

▪ 기대효과

- 태안군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 농촌경제 활력 증진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 농촌생태관광 기반의 전수조사 및 DB구축

▪ 사업개요

구분	농촌생태관광기반의 전수조사	농촌생태관광의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농촌생태관광 DB 구축 및 농가민박 활성화	농촌생태관광의 현장컨설팅 지원
사업위치	태안군 전역	태안군 전역	태안군 전역	태안군 전역
추진주체	태안군	태안군	태안군	태안군
추진일정	2016 ~ 2017년	2016 ~ 2017년	2016 ~ 2019년	2015 ~ 2019년
사업량	1식	1식	1개소	1개소
소요예산 (백만 원)	50	100	150	150

▪ 기대효과

- 공공 중심의 농촌생태관광 추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
- 민간의 농촌생태관광에 대한 전수조사 및 DB구축을 통해 현장지향적인 정책수립 가능
- 타 지역과 차별화된 농촌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임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 농어촌 관광휴양지구 조성

▪ 사업개요

구분	농촌생태관광 조례 제정	농어촌 관광 휴양지구의 지정	사회적 농장, 교육농장의 확충	농어촌 관광의 규제 개선 발굴 및 건의
사업위치	비공간	주요 체험마을	농어촌 관광휴양지구	비공간
추진주체	태안군	태안군, 민간	태안군, 민간	태안군, 민간
추진일정	2016년	2017 ~ 2018년	2018 ~ 2019년	2015 ~ 2019년
사업량	1식	3개권역	권역당 2개소	연간 10건
소요예산 (백만 원)	100	6,000	1,200	250

▪ 기대효과

- 개별 주체 단위로 추진되어 온 농촌생태관광을 공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 마련
- 주민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농촌생태관광에 필요한 경관정비와 환경정비를 추진
- 농촌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농촌관광활성화를 도모
- 농촌생태관광과 농촌개발의 유기적 연계로 농촌개발의 새로운 전략적 수단으로 접목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 그린+블루 농촌관광센터 설립

▪ 사업개요

구분	그린+블루 농촌관광 센터의 설립	그린+블루 도농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도농교류 프로그램의 평가 및 컨설팅 수행	도농교류 지원사업 및 도농교류 경진대회 개최
사업위치	안면읍	비공간	비공간	비공간
추진주체	태안군	농촌관광센터	농촌관광센터	농촌관광센터
추진일정	2018 ~ 2019년	2018 ~ 2019년	2018 ~ 2019년	2018 ~ 2019년
사업량	1식	연 10건	1식	연 1회
소요예산 (백만 원)	3,000	300	300	500

▪ 기대효과

-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으로 농촌생태관광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지원 가능
- 농촌관광센터의 설립으로 도시민에게 원스톱 서비스 형태의 농촌생태관광 정보를 제공
- 농촌관광센터의 운영으로 농촌과 바다를 아우르는 각종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게 될 것이고,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도모

농촌공간 및 경관

›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 사업개요

구분	태안군 희망마을 만들기	소규모 선행사업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사업위치	태안군 일원	태안군 일원	태안군 일원
추진주체	마을주민	마을주민	마을주민
추진일정	2015 ~ 2025년	2015 ~ 2025년	2015 ~ 2025년
사업량	매년 5개 마을	매년 5개 마을	1식
소요예산 (백만 원)	500	1,500	1,000

▪ 기대효과

- 태안군 주민이 주도하는 내발적 지역발전 도모

농촌공간 및 경관

› 경관 리노베이션(Renovation)프로젝트

▪ 사업개요

구분	주민주도의 경관가꾸기	경관·생태 직불제 확대도입	경관리노베이션 사업	경관벨트 지정 및 관리
사업위치	태안군 일원	태안군 일원	태안군 일원	태안군 일원
추진주체	마을주민	태안군	태안군, 민간단체	태안군, 민간단체
추진일정	2015 ~ 2025년	2015 ~ 2025년	2015 ~ 2025년	2015 ~ 2025년
사업량	매년 10개마을	1식	1식	1식
소요예산 (백만 원)	1,000	5,000	2,000	500

▪ 기대효과

- 경관보전 및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태안군 발전 도모

농촌공간 및 경관

> 농어상휴(農漁商休)연계 프로젝트

▪ 사업개요

구분	다양한 주민커뮤니티 및 협의회 육성	지역 내 협력네트워크 체계 구축	농어상휴 연계프로그램 개발
사업위치	태안군 일원	태안군 일원	태안군 일원
추진주체	태안군, 민간단체	태안군	태안군, 민간단체
추진일정	2015 ~ 2025년	2015 ~ 2025년	2015 ~ 2025년
사업량	1식	1식	1식
소요예산 (백만 원)	500	280	200

▪ 기대효과

- 태안군 내 다양한 주체와 조직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도모

농촌복지

>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구분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농촌 노인 일자리 창출	지역농특산자원을 활용한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	농촌지역 일자리창출 사업단 구성
사업위치	태안군 전역	태안군 전역	태안군 전역
추진주체	농촌지역 일자리창출 사업단 (가칭)	농촌지역 일자리창출 사업단 (가칭)	농촌지역 일자리창출 사업단 (가칭)
추진일정	2016 ~ 2019년	2016 ~ 2019년	2018 ~ 2019년
사업량	1식	1식	1식
소요예산 (백만 원)	1,200	800	300

▪ 기대효과

-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소득과 연결되는 구조, 삶의 질 향상, 사회참여기회 제공 등

농촌복지

> 공동두레농장 운영

▪ 사업개요

구분	영세소농을 위한 마을별 공동두레농장 운영	귀농인과 귀향인을 위한 예비 인큐베이팅농장 운영	귀촌인을 위한 공동은퇴농장 운영
사업위치	태안군 전역	남면, 근흥면, 고남면 등	안면읍, 소원면 등
추진주체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추진일정	2016 ~ 2019년	2017 ~ 2019년	2018 ~ 2019년
사업량	1식(8개소)	2식(귀농인1, 귀향인1)	1식
소요예산 (백만 원)	3,200	600	400

▪ 기대효과

- 영세소농에 대한 공동의 생산활동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 젊은 신규영농 인력이 유입되면서 농촌지역과 농업에 생명을 불어넣기

농촌복지

> 농촌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시스템 정비

▪ 사업개요

구분	마을단위 교통약자를 위한 희망빛버스 운행	마을단위 교통약자를 위한 희망빛택시 운행	로컬푸드 참여농업인을 위한 순환버스 운행
사업위치	태안군 전역(읍지역 제외)	태안군 전역(읍지역 제외)	태안군 전역(읍지역 제외)
추진주체	태안군	태안군	태안군
추진일정	2016 ~ 2019년	2016 ~ 2019년	2018 ~ 2019년
사업량	1식	1식	1식
소요예산 (백만 원)	600	800	200

▪ 기대효과

- 농촌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 관심 고조, 삶의 질과 만족도 향상

농촌복지

> 방방곡곡, 구석구석 문화공감 사업

▪ 사업개요

구분	마을별 작은문화공간 확충사업	“맘껏 문화생활 배우처” 지원사업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읍면별 순회공연
사업위치	태안군 전역	태안군 전역	태안군 전역
추진주체	태안군	태안군	태안군
추진일정	2017년	2016 ~ 2019년	2017 ~ 2019년
사업량	1식	1식	1식
소요예산 (백만 원)	800	1,200	450

▪ 기대효과

- 농촌지역 주민에게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향상, 지역문화 분위기 활성화

농촌인적자원

> 귀농인 및 신규영농인력 육성

▪ 사업개요

구분	인력육성사업과 타 정책사업 연계사업	귀농인 정착지원 및 영농컨설팅 지원사업	귀향인 영농지도 및 리더양성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융복합산업 컨설팅 지원사업	후계농업인 경영컨설팅 집중 지원사업
사업위치	-	-	-	-	-
추진주체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추진일정	2017 ~ 2019년	2016 ~ 2019년	2016 ~ 2019년	2016 ~ 2019년	2016 ~ 2019년
사업량	1식	연 20명	연 20명	연 100명	연 20명
소요예산 (백만 원)	300	4,000	1,200	400	4,000

▪ 기대효과

- 농업인구의 유입으로 태안군 다양화 및 활성화

농촌인적자원

> 태안군 농업회의소 구성 및 운영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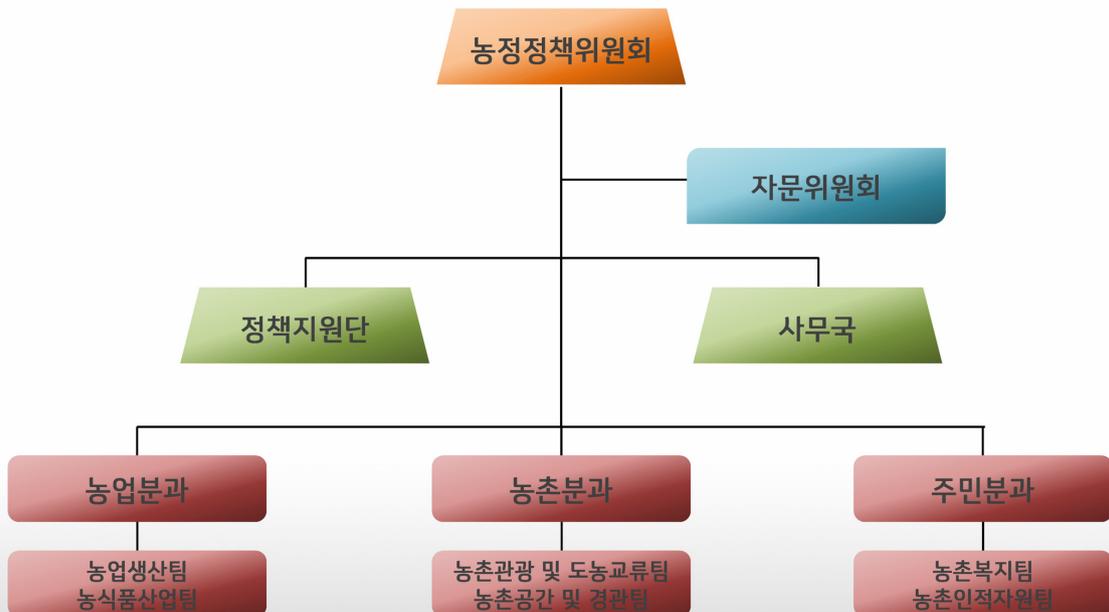
구분	부문별 민관협동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사업	민관협치기구 구성 및 시범운영사업	농업인 참여예산제 시범운영사업
사업위치	-	-	-
추진주체	농업회의소	농업회의소	농업회의소
추진일정	2017 ~ 2019년	2017 ~ 2019년	2016 ~ 2019년
사업량	1식	1식	1식
소요예산 (백만 원)	300	600	400

▪ 기대효과

- 관 주도 방식에서 조금씩 탈피하여 민간 주도방식의 농정지향, 농정분야 지방자치 실현

농촌인적자원

> 태안군 농업회의소 구성 및 운영(예시)



농촌인적자원

> 농업농촌포럼 및 농촌역량강화

▪ 사업개요

구분	마을별 멘토-멘티제 운영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의 통합적 운영사업	지역현장전문가 양성사업	농업농촌포럼 구성 및 운영사업
사업위치	8개 읍면	-	-	-
추진주체	농업농촌포럼	농업기술센터, 농업회의소	농업농촌포럼	농업농촌포럼
추진일정	2016 ~ 2019년	2017 ~ 2019년	2016 ~ 2019년	2017 ~ 2019년
사업량	8식	1식	1식	1식
소요예산 (백만 원)	1,600	300	1,000	300

▪ 기대효과

- 각종 사업의 완전한 실행을 위한 민관합동 조직구성, 다양한 역량결집 소통창구로서 활용

농촌인적자원

> 농업농촌 종합DB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구분	기초통계 전수조사 사업	기초통계 구축사업	영역별 세부통계 전수조사 사업	종합통계 구축사업
사업위치	태안군 전역	-	태안군 전역	-
추진주체	태안군	태안군	태안군	태안군
추진일정	2016년	2016 ~ 2017년	2017 ~ 2018년	2018 ~ 2019년
사업량	1식	1식	1식	1식
소요예산 (백만 원)	200	200	600	400

▪ 기대효과

-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한 농정방향과 목표설정 가능, 정책만족도와 실효성 향상

제 7 절

투자 및 운영관리

투자계획

>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합계	139,250	2,670	28,720	34,020	38,820	35,020
농업생산	62,000	-	13,900	14,500	16,900	16,700
농식품산업	26,400	100	6,600	6,500	6,700	6,500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12,100	-	250	3,350	5,800	2,700
농촌공간 및 경관	12,400	2,570	2,570	2,420	2,420	2,420
농촌복지	10,550	-	1,950	3,100	2,750	2,750
농촌인적자원	15,800	-	3,450	4,150	4,250	3,950

재원확보방안

- > 국가사업의 지방사업화
 - 중앙정부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광특회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충남도의 3농혁신정책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도비의 확보
- > 지방사업의 국가사업화
 - 지역특성이 있는 사업은 중앙정부 및 충남도에 적극 건의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 정책간담회 및 정책건의 등을 통해 중앙정부 및 충남도의 관심 제도
- > 관련기관의 사업연계화
 -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지역교육청, 한국서부발전 등과 연계협력하여 사업 추진
 - 관련 유관기관과 정례적인 교류 및 업무협의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 유도
- > 민간재원의 적극적 유치
 - 농업·농촌의 자발적인 투자 유도 및 자부담에 대한 비중 확대
 - 태안군 차원에서 태안군 농업농촌발전기금의 조성

추진방안

- > 내면화방안
 - 농민, 공무원, 군민을 대상으로 태안군 농업농촌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수행
 - 농업농촌정책을 중심으로 태안군의 지역발전정책을 통합화 추진
- > 연성화방안
 -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농정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농정의 강조
 - 농업·농촌 중심의 농정정책에서 농촌복지와 농촌인적자원의 병행 추진
- > 사회화방안
 - 태안군 농업농촌정책의 추진성과 및 성공사례에 대한 발굴 및 홍보 강화
 - 비농업, 비농촌 분야의 태안군의 인적·물적 자원을 농업농촌분야에 참여 활용
- > 제도화방안
 -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의 추진과 새로운 농업농촌정책의 적극적 발굴
 - 농업농촌정책 결정과정에 농민 및 농촌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확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태안 농업농촌을 위해
큰(泰)농업을 하는 즐거운(安)농촌을 만듭시다!!

제 2 장

TF 및 보고 회의록

- 제1절 군수 및 실무자 간담회
- 제2절 1차 실무 TF회의
- 제3절 2차 실무 TF회의
- 제4절 3차 실무 TF회의
- 제5절 중간보고회
- 제6절 4차 실무 TF회의
- 제7절 5차 실무 TF회의
- 제8절 최종보고회

제 1 절 군수 및 실무자 간담회

1. 일시 : 2014. 7. 29(금) 10:00 ~ 12:00

2. 장소 : 태안군청 군수실 및 농정과

3. 참석 : 태안군수 및 실무자, 연구진 등

- 충남발전연구원(5) : 이관률, 조영재, 강마야, 김종화, 여민수
- 태안군(4) : 한상기 군수, 최교목 과장, 최승자 계장, 안대성 주무관

4. 주요 논의사항

1) 군수간담회

- 군수가 생각하고 있는 점, 걱정스러운 문제들을 공유하고자 이 모임을 가짐
- 기본적으로 정부의 농업정책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함. 미래의 선진농업으로 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됨.
 -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이 아닌 당근책만 쓰는 것 같음
 - 농업정책에서 예산투자에 문제가 많이 있음. 대부분 사업에 대하여 짜깁기 방식의 정책만 있고 새로운 사업이 없음
 - 농외소득증대 목표설정이 현실과의 괴리가 있음(60%)
-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농업분야의 투자는 생존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할 것임. 근본적으로 경제발전과 농업발전에 대한 투자는 다르게 접근하여야 할 문제임
- 농업·농촌의 근본적 문제는 사회의 타 분야와 격차가 늘어나고 있음. 최소한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그러나 예산을 늘리고 소득이 몇 % 증가하였던 이야기로 변명하지만 이 수치만으로 근본적 문제해결이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① 농업소득 분야에서 1. 농지의 규모화 2. 과학영농의 발전이 필요함

TF 및 보고 회의록

- 새만금, 서산 A-B지구 등 개발은 많았지만 실효성은 많이 없었음
- ② 농외소득 확대 분야는 1. 특화작목 개발 2. 친환경 농업 3. 작목반 등의 조직 결성 4. 관광 5. 생산물의 판로 6. 농산물의 제품화(가공)의 중점적 개발이 필요함
- 농업소득, 농외소득의 축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 농촌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이 자력으로 해결하고 개척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이유로는 대부분의 농촌이 고령화 사회에 있기 때문임
- 농업소득 분야의 접근은 기술적인 내용, 국가의 정책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농외소득의 확대에 중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가로변 농산물 판매소에 군, 농협 브랜드 농산물 판매방안 강구
 - 관광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 대상 판매전략 강구
- 본 과제는 태안군의 농업·농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좋은 내용들이 나와서 전체의 농업·농촌에 있어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함
- 미국, 유럽의 농업 발전사는 Village-City-주정부-연방정부 등 상향식 발전이고 기본은 자치단체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주도로 하려다 보니 지역실정과 맞지 않고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중앙에서 바라 볼 때엔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당위성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지방에선 문제가 생기고 있음

2) 실무자 간담회

- 고추, 마늘이 주 작목임. 주 작목에 대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함. FTA, TPP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쌀 등 미맥은 전국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음
- 고추, 마늘의 작목이 주가 되지만 그 이외에 태안에 맞는 작목이 있으면 육성을 하였으면 함
- 농업정책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함.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또한 맞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시군에서는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음

태안군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 3년간 30억 원을 지원하는 향토산업이 있음. 태안에서도 마늘, 고추, 소금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음
- 과업의 기간을 짧게 잡기 보다는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1년간의 장기로 잡음
- 식품산업 발전계획 제출에 관련하여서는 중간보고내용을 기반으로 태안군에서 작성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본 과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어시스트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함
- 현황분석을 한 후 9월 25일 실무 미팅을 하는 것이 좋겠음(농정과, 기술센터 주요 실무자) - 총발연에서 발제 수준의 자료 준비
- 농업인 단체와 관련하여 과업 진행과정에서 워크숍 실시 예정
- 중간보고는 1월 중·하순경 실시

제 2 절 1차 실무 TF회의

1. 일시 : 2015. 1. 13(화) 16:00~18:00
2. 장소 : 태안군청 2층 소회의실
3. 참석 : 총발연 연구진 5명(이관률, 조영재, 강마야, 김종화, 여민수), 군청 관계자 3명(안대성, 최승자, 안정호), 실무TF위원15명(김동민, 윤계한, 신세철, 박노은, 허길, 김정근, 은창기, 김지영, 방명식, 문종록, 김부경, 문제남, 공병운, 김완태, 고경미)

4. 주요 의견

[농업생산]

- 김완태 위원
 - 태안군의 경우 고추 및 마늘이 특화작목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들 작목보다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비중이 높으니 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소비자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원하고 있음. 그러나 농가의 입장에서는 생산비와 재배방식 등 접근이 매우 어려움. 이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방식에 대한 접근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문제남 위원
 - 천혜향, 베리류 등 대체작목을 제시하였으나 특별히 두각되는 작목보다는 소비자 구매욕을 자극하는 작목이 특화작목임. 이는 생산보다 판매가 중요하다는 의미임
- 은창기 위원
 - 태안 내 농가 중 쌀농가의 비중은 약 63%임. 재배 비중이 높을뿐더러 고추,

태안군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마늘, 고구마 등의 경우 고소득 작목이기 때문에 쌀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날 필요성이 있음

- 들녘별 경영체는 현재 태안에 존재하지 않음. RPC와 경영체간 연계되어야 하고, 특히 RPC의 활성화가 필요함
- 박노은 위원
 - 농산물 자체로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힘들. 가공을 함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유도할 수 있음. 또한 가공을 한다면 유통도 수월함
 - 가공과 유통이 연계된 정책개발이 필요함
 - 최근 양념채소연구소가 생김. 이를 적극 활용하여 미래지향적 산업으로의 유도가 필요함
- 김부경 위원
 - 새로운 브랜드의 개발보다는 공동브랜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함
 - 사업에 대하여 일부 주민만 수혜받기 보다는 전체 주민의 참여 유도가 필요함

[농식품산업]

- 공병운 위원
 - 농협에서 화훼 위주로 APC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APC와 학교급식 간 연계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로컬푸드에 대한 태안 지역적 연구가 많이 없기에 운영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 허 길 위원
 - 거점 유통센터를 대형으로 만들어서 FTA에 대비하자는 정책이 있음
 - 농업에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기회가 많지 않고, 기반시설 또한 불안함
 -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제시하였으나 현실과 맞지 않는 사업이 한 가지도 없음

TF 및 보고 회의록

- 현 정부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맞춰 농업벤처 여건을 마련하여 주었으면 좋겠음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 김지영 위원
 - 태안은 바다, 산 이라는 훌륭한 자연자원이 동시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치유관광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함

[농촌공간 및 경관]

- 방영식 위원
 - 살기좋은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 적절한 당근책을 주어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 윤계한 위원
 - 태안군 경관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이와 연계된 계획수립이 반드시 필요함
 - 생색내기용 사업은 자제하고 주민자치, 참여, 인센티브,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선도사업 등이 필요함
 - 실제 농촌에 살고있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현실과 맞는 사업이 필요함

[농촌복지]

- 최승자 위원
 - 충남도에서 실시하는 3농혁신의 1단계가 마무리 된 단계에서, 귀농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생활체감형 복지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시·군 및 농업인간 생각의 차이가 많아 사업 시행에 있어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임

- 제시한 사업 중 기존의 사업은 제외하거나 확대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임
- 농촌복지 사업의 경우 수혜자가 바로바로 체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의 발굴이 필요함(농한기 건강프로그램, 여성농어업인 흡수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 김동민 위원
 - 태안군은 젊은층 인구가 태안읍, 안면읍 등지에 주로 분포되어 있음.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 노년층 인데, 이러한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임. 노인이 평생 일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함
- 은창기 위원
 -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함

[농촌역량강화]

- 김정근 위원
 - 사업 시행에 있어서 조력자가 없다면 훌륭한 결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임. 이에 사업시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리더의 발굴, 교육이 필요할 것임
- 신세철 위원
 - 체험마을의 대부분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음. 이에 실패원인을 먼저 파악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임
- 최승자 위원
 - 농촌에서 현실적 어려움(농번기 등)으로 인해 교육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움. 이에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등의 정책 개발이 필요
 - 태안의 경우 수도권과 접근성 면에서 우수하여 귀농상담이 많이 있음. 귀농 정착을 위해 사전조사를 다니는 지방사람들을 위한 임시 숙박시설에 대한 검토 필요함

TF 및 보고 회의록

[기타의견]

- 신세철 위원
 - 농업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의 규모가 매우 적음
 - 농업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농협의 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쉬움
 - 농촌의 현실을 직시한 계획 수립이 필요
- 김완태 위원
 - 농외소득창출 : 도시민을 끌어들이는 정책이 필요함. 태안군의 경우 체험관광 이외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치유프로그램, 권역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고령인구의 농외소득 참여방안 프로그램 개발 필요함
 - 직불제를 확대하여 농외소득을 늘리는 방법 또한 고려하여야 할 것임

[사진자료]



제 3 절 2차 실무 TF회의

1. 일시 : 2015. 2. 26(목) 10:00~12:00
2. 장소 : 태안군청 2층 소회의실
3. 참석 : 총발연 연구진 5명(이관률, 조영재, 강마야, 김종화, 여민수), 군청 관계자 2명(최승자, 안정호), 실무TF위원 8명(농정과 공병운, 문제남, 김부경, 김완태, 상미원 박노은, 농업기술센터 김선철, 박선희, 쌀 전업농 은창기)

4. 주요 의견

[농식품산업]

- 공병운 위원

-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민을 위한 로컬푸드 보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로컬푸드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임. 남면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임
- 학교급식 센터를 운영하기엔 학생 수가 적어, 직접운영이 어려워 청양의 방식을 벤치마킹 할 예정임
- 로컬푸드-학교급식-산지유통센터의 연계 활용방안 필요

- 박노은 위원

- 미국 난 농장에 9년 전 미국을 방문했을 때 보다 훨씬 더 활성화가 많이 되어있음. 유통 및 생산기술 등 우리나라에 많이 뒤쳐져 있었음. 그러나 지금은 난 농장이란 표현보다는 '난 공장'이란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많이 활성화 됨. 농장에는 재배인원보다 가공(포장)인원이 더 많음
- 농가가 직접 대형마트에 납품함으로써 농가소득 또한 많이 높아짐

- 기존의 APC 시설을 활용한 화훼유통을 하는 방법을 피하여야 함. 화훼의 경우 원물을 납품하는 것이 아닌 포장재품으로 경매장 보다는 APC 통해서 하나로마트로 납품한다면 농산물이 아닌 상품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꽃다지 브랜드의 적합여부 보다는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함. 외부 사람들은 꽃다지가 태안의 브랜드인지 모름. 적합여부를 논하는 것 보다는 홍보를 위해 태안 꽃다지 라는 식의 이름변경이 필요함
- 은창기 위원
 - 성공한 로컬푸드 매장의 대부분은 인근에 대도시가 있거나, 소비가 활성화된 곳에 위치함. 그러나 로컬푸드 컨트롤센터가 위치한다면 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아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방목형 축산은 10년 이전의 정책을 되돌아가는 실태임. 자본 또한 많이 투입되는 사업임. 많은 토지가 필요하고 자본이 필요한 사업임에 대책이 필요함
 - 군의 의지도 좋지만, 농민의 인식 및 의지함양임. 농민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함
 - 사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면 함. 예를 들어 한우의 마케팅에 관한 사업을 설명한다면, 젊은층을 겨냥한 식감이 좋은고기, 노인층을 겨냥한 건강에 좋은고기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김부경 위원
 - 태안의 방목형 축산사업은 이원간척사업이 진행되어있기 때문에 실현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유럽 같은 경우 ha당 1~4마리의 사육을 하는데, 태안의 경우 이 기준을 맞추기도 힘든 실정임. 축산분야에선 방목형 축산 보다는 브랜드 강화쪽 사업을 하여야 할 것임
- 공병운 위원
 - 사업을 가능한 것만 넣어야 함. 중복된 것 또한 많음. 또한 연도별 계획도 들어가야 할 것임

TF 및 보고 회의록

- 학교급식센터에서 타 기관에서 연계하여 확대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음. 그러나 태안군의 경우 학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에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발굴 및 개선책이 필요함
- APC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꽃다지는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가공식품 및 농산물에 모두 부착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썬푸드와 혼용되어 사용하면 안 됨
- 김완태 위원
 - 태안의 햇살을 이용한 가공, 생산을 하자는 사업은 좋음. 과연 고구마와 마늘 등 품목이 썬푸드와 연계되어서 상품 출하가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지 연관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언급해야 함
 - 가공식품 자체가 태양에서 말린 것이 아니라 건조기에서 말린 것임. 태양에서 말리면 금방 마르지 않고, 제품 상태가 나쁘게 될 수 있어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수 있음. 오히려 기계로 가공하는 것이 위생적이고, 더욱 수월함

[농업생산]

- 박선희 위원
 - 통계자료는 참고용으로 하고 태안군의 10대, 20대 작목을 뽑아 농가와 대화를 통해 아이디어를 수렴하여야 할 것임
 - 군에 맞는 발전방안이 필요함. 예를 들어 남부권역, 중부권역, 북부권역 으로 나누어 권역별 발전방안 등도 필요함
 - 군, 농협, 기술센터, 농업인 조직체 등 주체별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진 사업이 반영되어야 함

[농업생산]

- 김완태 위원
 - 제시된 대부분의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중앙정부에서 농친 틈새를 태안군에서 어떻게 연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 필요함
 - 경관농업, 들녘별 경영체 육성에 관한 지원은 필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농민의 선호도가 떨어짐
 - 고령화에 대한 대책 언급 필요
 - 농산물 최저생산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넣어야 함(근거의 발판 마련)
- 김선철 위원
 - 태안군의 전략작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고추, 마늘, 생강, 화훼 등에 의존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음. 그러나 시장개방으로 중국과 경쟁하여 불리한 실정임
 - 기존의 작목에는 소득의 한계가 온 것으로 판단되어 대체작목을 찾고 있음
 -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유통문제임.
 - 기존의 화훼시설은 25년 전에 지어진 시설임. 하우스 시설은 오래되었지만 시설 자체는 훌륭함. 기존 하우스를 이용한 만감류, 딸기, 방울토마토 등을 재배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함
 - 채종단지(마늘, 화훼, 고구마, 보리 등) 조성사업은 태안의 지역의 실정과 딱 들어맞는 사업임

[기타의견]

- 공병운 위원
 - 보고회 이전 미리 자료를 배포한다면 좀 더 나은 토의가 될 것임

TF 및 보고 회의록

[사진자료]



제 4 절 3차 실무 TF회의

1. 일시 : 2015. 2. 26(목) 14:00~16:00
2. 장소 : 태안군청 2층 소회의실
3. 참석 : 총발연 연구진 5명(이관률, 조영재, 강마야, 김종화, 여민수), 태안군청 담당자 안정호, 실무TF위원5명(김농정과 최승자, 도시건축과 방명식, 건설교통과 조승엽, 건축사 윤계환, 체험연구회 하재준)

4. 주요 의견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 최승자 위원
 - 난도 팽이갈매기 번식지는 생태경관자원경관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관광객, 주민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라 삭제하여야 할 것임
 - 직거래 등으로 도농교류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
 - 도농교류팀의 신설보다는 외부에 위탁을 주어 민간팀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임
 - 국가차원에서 분석과 지자체차원의 분석을 하였으나, 군 자체에서는 한계가 있기에 태안군에서 할 수 있을만한 사업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 하재준 위원
 - 태안군의 농업·농촌을 처음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임. 도시민이 처음 왔을 때 “아!이런 곳에서 살고 싶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함
 - 경관정비만 된다면 따로 관광시설 등을 만들지 않아도 살고싶은 곳이 될 수 있음. 깨끗하고 주변정돈만 잘 되어 있다면 관광사업은 걱정이 없을 것임
 - 마을별 특성을 고려한 발전방안 필요함

TF 및 보고 회의록

- 농촌발전, 농촌활성화의 기본은 경관을 많이 헤치지 않는 선에서 개발하는 것임
- 토지이용 규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생산관리 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 같은 경우 관광객이 관광을 와서 식사나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생겨날 수 없음
- 인천의 차 없는 관광지 도로, 마이애미의 트레이드마크를 이용한 관광상품개발을 통한 관광지 활성화도 피하여야 할 것임
- 빈집이 많다는 것은 인구의 유입이 많지 않다는 것임. 태안군이 발전하려면 사람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방명식 위원
 - 공간부문 조성 및 발전을 위해서는 자연 그대로의 보전이 가장 중요함.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큰 틀에서의 발전을 이야기 하는 것은 누구나 이야기 할 수 있음
 -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실행계획 부문까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함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안면도, 만리포 지역임. 이 두 곳에서 문화시설(공연장 등), 직거래시설의 환경을 조성한다면 관광객은 여행, 문화체험 등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임
 - 농어촌 관광 마케팅의 방법 중 하나는 향수(애향심)의 자극임. 시골다운 추억을 끌어들이는 관광이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현대식도 중요하지만 시골이 시골다운 분위기를 낼 수 있는 환경 조성)
- 윤계환 위원
 - 태안군에 개최되는 축제가 많이 있지만 군민조차 모르는 축제가 많이 있음. 축제의 경우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가까이 있는 사람도 관심이 없다면 보이지 않음
 - 이 말은 축제가 개수는 많지만 보령의 머드축제처럼 내용을 만한 축제가 없다는 것이 한계임. 축제가 아무리 많아도 집중하여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축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할 것임

- 해수욕장이 많이 있음. 이는 분산적 투자가 이루어져 핵심 해수욕장이 없이 발전이 더디고 있음.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져 관광명소로의 발전이 필요함. 물론 정치적으로 지역 안배 등의 분제가 생길 수 있음.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보단 한 가지 집중이 필요함

[농촌공간]

- 최승자 위원
 -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잘 연구됨
 - 태안은 자원이 너무 많아서 집중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항상 연구용역을 하면 집중을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음
 - 태안에 체험마을로 지정된 곳은 12개 마을이 있음. 일부 마을은 잘 운영되었으나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체험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기존 폐가를 이용해서 농촌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좋은 의견이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제약조건이 많이 있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등을 통해 보상을 해서 1~2곳 개발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임
- 하재준 위원
 - 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 전통테마마을 등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 통합운영이 어렵고 따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임
 - 귀농센터와 귀촌센터를 별개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시골에 내려온 사람들 개별로 하고 싶은 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60세 넘은 사람이 귀촌을 한다면 재정이 좋지 않게 됨. 생산 가능인력이 들어와야 재정이 도움이 됨. 나이가 적은 사람이 귀촌을 한다는 것은 도시에서의 삶 또한 어렵지 않음
 - 고령자는 병원도 가깝고 경치도 좋은 곳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귀촌단지

TF 및 보고 회의록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함. 특히 태안의 경우 이주단지 여건이 굉장히 좋음. 나중에 귀촌자의 친척들이 놀러왔을 때 자연스럽게 주변의 체험마을을 방문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음

- 경관사업의 경우 예전 관 주도의 행정의 단점이 너무 획일적 미관조성이 문제였다면 현재는 각자의 개성이 너무 많이 표출되어 서로 너무 어울리지 않게 경관이 조성되는 단점이 있음. 이에 마을마다 일정한 제약(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 방명식 위원

-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점면 소재지 지원사업 등을 지원해 보려고 하여도 공무원 뿐만 아닌 주민 역시 관심이 없음
- 사업, 개발, 교육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심축(조직)이 하나 있어서 정보제공 등을 하여 연계가 될 수 있어야 함
-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법적 제약에 걸려서 실현가능성이 많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음
- 빈집을 이용해 귀농인이 귀농을 할 경우 집을 수선하여 들어와야 하는데, 여러 가지 건축법상 규제에 의해 집을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윤계환 위원

- 귀농귀촌인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혹은 사람이 필요함. 예를 들어, 귀촌인이 시골에 들어오면서 땅을 구입하는데 집을 질 수 있는 대지인지 아닌지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등으로 귀촌인의 빠른 정착을 도울 필요가 있음

• 조승엽 위원

- 농촌이 발전하려면 주민역량이 발전되어야 함. 역량 발전을 위해선 주민들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농번기가 겹치고 그렇다면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는 것이 현실임
- 교육 또한 교육으로만 끝나고 교육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음

[사진자료]



제 5 절 중간보고회

1. 일시 : 2015. 3. 3(화) 19:30~11:00
2. 장소 : 태안군청 2층 중회의실
3. 참석 : 태안군수 및 총발연 연구진 등 32명
4. 주요 의견

- 민주식

-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 너무 빨리가는 경향이 있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미래지향적 정책이 많음. 이에 예산에 비해 효과 및 성과가 뒤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임
- 배고픔을 극복하자마자 멋스럽고 맛있게 먹는 트렌드로 바뀌며 적응해 나갈 시간이 없었던 것이 현실임
- 태안군엔 체험 및 관광이 많이 있음. 선진국 우수사례를 그대로 벤치마킹 한 것인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음. 관광객이 머물고, 즐길 기반조성이 되지 않았지만 예산만 투입하여 예산대비 좋은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이라 생각됨
- 이에 태안농업은 아직까지 보조에 의존하여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 실질적으로 기반시설(하우스 등)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많았음
- 외부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태안농업은 예산 보조가 필수로 있어야 할 것임

- 현영주

- 축산 쪽 사업이 많지 않음

태안군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 인근 홍성의 경우를 보았을 때 축산업이 발전하여 상당부분 부를 얻을 수 있었음. 태안 또한 축산에 힘을 써서 농업부문에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함. 태안의 경우 축산에 적합한 기반을 갖고 있음(같은 면적에서도 생산성이 우수함)

- 김동민
 - 노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복지는 노인이 일할 수 있는 공간,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함. 마을 특수성을 고려한 마을기업, 노인이 평생 현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함
 - 100세시대, 노인이 즐겁게 살 수 있는 문화공간의 확충
 - 독거노인 공동생활소 건설

- 태안군수
 - 농업·농촌문제의 근본의 이해가 필요함. 중앙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득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많지만, 농업분야는 특히 사회의 타 분야와 격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임
 - 농업정책은 국가차원에서는 미래의 선진농업을 향해 장기적 전망을 고려하면서 부수적으로 소득보전, 환경보전 등을 하여야 하지만 현재 투자되는 것은 ‘주’가 아니고 ‘부수적’투자가 ‘주’가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앞으로 국가적 농업시책은 장기적 종합발전에 목적을 두고 기반부문에 투자(장기적 관점)해서 일한만큼 소득 얻는 정책, 자치단체는 분야별로 지역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임
 - 농업소득의 증가는 한계가 있음. 순수농업 이외의 소득창출방법을 발견하여야 함. 예를 들어 과거에 생산위주 농업정책을 가공, 홍보, 판매위주로 소득원을 넓혀야 함

TF 및 보고 회의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 세계적인 부분이 농업을 좌우할 것인데 언급이 빠짐(FTA 등 세계화를 의미하는 것 같음)
 - 귀농열풍이 전국적으로 불고 있지만 귀농정책에 대한 언급이 빠짐
 - 장기적 구상을 하기 위해선 미래 예측부분이 필요함
 - 전국적으로 가축질병문제, 병해충 예방 대책의 언급 필요함
- △△
 - 농민이 FTA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읍면별 전략적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 대규모 단지의 조성을 통한 전국적인 이슈화가 필요함
 - 태안만의 고유한 브랜드와 대규모 단지로 소득증대를 하여야 할 것임(고추 재배단지, 다래재배마을 등)
- 의료원 원무과장
 - 태안은 반농, 반어 형태의 가구가 대부분임. 그러나 용역은 농업쪽으로만 연구가 수행되어 있음. 어업과 접목한 연구수행이 필요함. 시너지 효과를 위해선 농업+어업이 함께 반영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임
- ○○
 - 농지, 노동력, 품목이 농업의 기본이라고 생각함. 가장 변화가 큰 것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변화, 전략변화와 기후에 따른 재배 품목이 바뀌고 있음
 - 10년, 20년 후 노동력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힘들. 실제적으로 농촌의 10년 후는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대농을 육성하여 기계화 등의 정책을 펴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 생각됨
 -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 필요함

- 도시건축과장
 - 태안군 농업·농촌의 실태를 세부적으로 진단을 잘 함.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비전이 제시되어야 함

- 문규선
 - 고령화, 공동화는 수십 년 전부터 이루어진 것임. 노동집약적 농업에 대한 농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계화, 기술발달로 인해 대농위주의 정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함
 - 귀농자들이 기존 농민과 같이 융합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운 상황임. 귀농자를 이용한 농촌인력 수급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모화를 통한 농촌 지역 활성화 정책을 하여야 함

- 전제욱
 - 농촌 역량강화 주요사업에서 여성농업인 및 다문화가정 역량강화 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주관단체가 어디인지 언제 건립이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 내용 설명 부탁

- 태안군수 최종 마무리
 - 태안농업의 미래분야 정립하여야 함. 기본방향은 국가차원의 미래지향적 농업인가 자치단체 차원의 현실지향적 농업인가에 대한 방향이 있음. 지자체단 체 차원에서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현재상황도 고려한 현실적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함(계량적으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60~70% 가량 현실적 정책을 잡는 것으로 고려하여야 함)
 - 인력 및 기후 등 미래 예측분야에 대한 보강 필요함. 5~10년 후 농업에 종

TF 및 보고 회의록

사하는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농촌, 농업이 어떻게 되어있을까? 에 대한 예측을 필요하고, 뚜렷한 대비책 및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업 또한 세계화가 되어감에 따라 모든 부분이 세계 단일체제, 경쟁체제임을 염두해 두고 세계 각국과 경쟁하는 차원에서 과업진행 필요

[사진자료]



제 6 절 4차 실무 TF회의

1. 일시 : 2015. 3. 19(목) 14:00~15:00
2. 장소 : 태안군청 2층 소회의실
3. 참석 : 연구진 6명(이관률, 조영재, 강마야, 김종화, 여민수, 김수현), 군청 관계자 1명(안정호), 실무TF위원 7명(농정과 최승자, 주민복지과 장복순, 기술센터 인력육성팀장 임미영, 건설교통과 조승엽, 태안군 노인회장 김동민, 그린리치팜 대표 신세철, 중장2리 김정근 이장)

4. 주요 의견

- 김동민 위원
 - 노인복지는 해안가, 산간 등 마을별 특색을 갖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임
 - 많이 개선되었지만 노인의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함
 - 독거노인의 공동생활제는 계속 요구되는 사업이고, 매우 필요한 사업임
 - 경로당에서 매우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요양병원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나, 아프지 않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갈 수 있는 양로원을 만든다면 복지에 도움이 될 것임

- 장복순 위원
 - 중복이 되는 사업이 많이 있음. 아이돌봄 센터가 이미 있는데 별도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한쪽을 강화해야지 분산해서 개발하는 사업은 안 됨

TF 및 보고 회의록

- 김정근 위원
 - 사업 중 많은 것들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가장 중요한 것은 태안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6차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만 마을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교육부문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음
 - 귀농인들의 현장에 맞는 체계적 교육이 필요함. 과거에는 인턴농업제, 예비농업인 교육 등 많은 교육이 있었음
 - 규모가 큰 사업을 하기 전에 예비사업을 미리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함
 - 농촌의 현상, 현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각 사항별로 세부적인 교육이 필요함. 현재 농업에 대한 교육은 영농교육에 불과함
 - 마을에 필요한 인력은 귀농귀촌 농가에서 찾아야 할 것임. 목적이 있다면 귀농귀촌인을 유치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함

- 임미영 위원
 - 31쪽의 현황자료 수정 필요함. 대다수가 교육사업이 아닌 하드웨어 성격의 사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함
 - 품목별 25개 연구회가 조성이 되어있고, 작목별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 태안 농업대학에서 1년 과정으로(100시간) 운영하고 있음. 2015년도는 귀농반으로 주제를 정하고 42명의 입학생을 받음
 - 국비사업으로 강소농 교육과정(30~40명)을 운영하고 있음. 대다수가 귀농인
 - 정보화 교육도 진행하고 있음
 -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여성농업인, 귀농인의 참여율이 높음. 일반농민은 고령화로 인해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
 -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팀이 생기면서 외부로 부터의 문의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태안군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 귀농인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농업인에게도 혜택이 가는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싶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임
 - 역량강화도 분야별로 교육이 다양화 되고 있음. 기존에 귀농귀촌에 대하여 다루지 않았으나, 태안군에서도 교육이 시작되었고, 강소농 교육도 시행하고 있음
 - 분야별 교육에 따른 단점은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임. 다수의 사람이 많은 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함
- 신세철 위원
 - 태안의 경우 집촌보다는 산촌이 많아 공동체 의식과 단결력이 많이 결여되어 있음. 마을의 공동사업을 진행할 때 정서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함
 -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도 군단위 브랜드로는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메이저 단일브랜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 20년 전 태안군은 8만 가구에서 현재 6만2천 가구로 줄어든 상황. 농어업이 사양산업이 된 것은 세계적 트렌드 임. 대내적으로 반전을 피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중 해저터널 등 큰 산업시설이 들어온다면 태안의 가치는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역량강화를 보는 바로미터 중 하나는 지역문화제에는 지역민의 삶이 녹아있기 때문에 지역문화제라고 생각함
 - 조승엽 위원
 - 2012년도부터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색깔있는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 결성 시 각 분야별로 협의체가 있음. 협의체 현황을 파악한 후 총괄적인 협의체를 만든다면 운영에 효과적일 것임
 - 희망마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음

TF 및 보고 회의록

- 최승자 위원
 - 전체적으로 계획한 사업이 많이 보강되어있음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농촌으로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음. 생산부터 판매까지 6차산업화 교육, 판로개척교육 등이 강화되어야 함

[사진자료]



제 7 절 5차 실무 TF회의

1. 일시 : 2015. 6. 19(금) 14:00~15:00
2. 장소 : 태안군청 2층 중회의실
3. 참석 : 연구진 6명(이관률, 조영재, 강마야, 김종화, 여민수, 김수현), 군청 관계자 1명(안정호), 실무TF위원 13명(태안군 노인회 김동민, 그린리치팜 신세철, 상미원 박노은, 중장2리 김정근, 체험마을협의회 하재준, 쌀 전업농 은창기, 농정과 최승자, 농정과 김완태, 농정과 김부경, 주민복지과 김동선, 건설과 문종록, 농업기술센터 임미영, 안명숙)
4. 주요 의견

[농업생산부문]

- 김완태 위원
 - 가공용 쌀 생산단지 는 농식품부에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정부에서 쌀 의무수입량을 가공용 쌀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가 가공용 쌀을 생산해도 판로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지역별로 3개지역을 가공용 쌀단지 조성하는 것 보다는 5개년간 1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확대하는 형태의 사업이 있어야 할 것임
- 은창기 위원
 - 생태경관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농촌 관광과 연계한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지만, 경관보전직불제의 대상작목이 제한되어 있고 소득이 적기 때문에 농민들은 재배를 꺼려하고 있음. 또한 연속된 2ha면적에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음. 권역별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을 구상하여야 함
 - 쌀 자급률은 연간 소모량보다 약 24만 톤 초과되었음. 올해는 작년과는 다

TF 및 보고 회의록

르게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매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공용 쌀 재배단지 조성은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됨

-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목재배 방안 마련
- 논을 이용한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 : 축산에서 다룰 문제인지 농산에서 다룰 문제인지 애매함. 같이 협업하는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어려워짐
- 방목형 축산vs친환경 축산은 선택에 있어 문제임. 방목형은 투자비가 문제이고, 친환경 축산은 판매에 있어 문제가 발생함. 어떤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지 판단 필요
- 김부경 위원
 - 생산부문 주요작목 특화마을 조성에서 품목별로 빠진 마을이 몇 군데 있음. 마늘은 원북, 고구마는 태안, 남면지역이 필히 포함되어야 함
 - 종자산업은 전쟁에서 무기와 같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함. 토종종자사업 부문에서 1~2개의 품목을 더 추가 보강하여야 함
- 박노은 위원
 - 화훼가 타 지역보다 많은 상황. 화훼의 생산보다 유통부문이 소득을 좌우하고 있음. 기존 설립된 화훼 APC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음. APC 활용방안이 연구에 들어가야 할 것임

[경관부문]

- 문종록 위원
 - 경관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주민협의 도출임. 경관은 주민협의체를 통해 이뤄져야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서 상에 주민협의 방안을 제안하였으면 함

[인적자원부문]

- 문종록 위원
 -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정착이 어려운 점은 민주적 회의문화임. 기타사항은 교육을 통해 익숙해지지만 처음 겪는 회의문화를 정착시키고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는 문제가 있음. 민주적 회의문화의 교육강화방안 필요
- 은창기 위원
 - 여성, 귀농인들이 태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이 매우 중요함.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농식품부문]

- 안명숙 위원
 - 6차산업이 최근 이슈가 되고 중요한 부문이기에 구체적 논의 필요함. 민간에서 기존 추진 중인 것과의 연계 등내용의 구체화 필요

[농촌공간 및 경관]

- 하재준 위원
 - 그린+블루 센터설립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됨. 그러나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사업이 되면 사실상 지금과는 크게 다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디테일한 분석을 통한 사업발굴로 강력한 조직이 만들어져야 함
 - 농어업 DB구축은 농촌체험 부문은 기술센터 및 민간단체에서 구축된 자료가 많이 있으나 취합에 문제임. 자료제공은 협조하겠음
 - 태안에선 자체적으로 쌀도 많이 나고 다른 농산물도 많이 나지만 외부인이 보기엔 꽃, 바다가 가장 인식에 있기 때문에 꽃, 바다를 잘 이용하여야 할 것임

TF 및 보고 회의록

[농촌복지]

- 김동민 위원
 - 농촌복지분야 사업에 평소 생각하던 것과 요구하던 것이 잘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의 문제임.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한지? 책임자의 추진의지가 있는지? 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임

[기타]

- 김정근 위원
 - 농어촌의 규제개혁이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음. 정부소유의 땅에선 개발이 매우 어려운 상황. 마을 입구를 늘리더라도 협의가 되지 않는 매우 어려운 상황. 해결을 위한 협의기구 필요(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행위제한)
- 하재준 위원
 - 여러 가지 사업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정해 우선순위별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임

[사진자료]



제 8 절 최종보고회

1. 일시 : 2015. 7. 17(금) 09:30~11:00

2. 장소 : 태안군청 2층 중회의실

3. 참석 : 태안군수 및 충남연 연구진 등 30명

4. 주요 의견

- 관광진흥과장

-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이용한 푸드축제 기획 연구용역 중. 기존 시행하고 있는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농촌축제부문 참고할 것
- 농촌관광센터의 단일화가 아닌 태안군 관광발전협의회 등 조직의 관문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센터 내용보강 필요
- 생태농촌관광 휴양지구조성사업은 이원 간척지의 농촌관광단지와 연계하여 보고, 느낄 수 있는 사업 필요

- 건설교통과장

- 재원확보 부분에서 지방사업의 국가산업화 사례 언급 필요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선도적으로 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
- 태안군의 농업분야 관련부서(농정과, 농업기술센터)의 효율적 측면에서 행정적 진단이 없음. 타 지자체의 운영방안 참고하여 태안군의 현실에 적용방안 마련 필요
- 농업의 발전방향을 마련하였으나 소규모농가의 발전방향에 대한 구체적 접근 방안 등이 부족함

태안군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 태안군 농업의 현실상 농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매우 힘들. 대부분 어업과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과 어업의 동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다양한 사업이 제시되었으나, 하나의 사업이라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한가지의 사업이라도 시범사업 통한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마련 필요
- 농업의 6차산업화, ICT, 융복합 등 많은 용어들이 쓰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의 수혜자인 농업인들은 이런 용어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음
- 태안농업에서 젊은 영농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소규모 영농지원자금 보다는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금액지원 등을 필요해서 농촌에 정착을 유도할 필요 있음
- 드론 등을 이용한 공동방제 시스템 구축 필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 태안군의 현황은 분석이 잘 되어있지만 국내외 현황에 대한 분석 보강 필요
 - 태안에서 삼나물이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분석결과가 나왔지만, 사실상 태안에서는 삼나물 재배농가는 없음. 확인 필요함
 - 사업의 세부적 계획이 필요함
 - 대부분의 제시된 사업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과 차이가 많지 않기에 획기적인 사업이 제시되었으면 함

- 태안군수
 - 태안의 대표축제를 찾고 있음. 태안의 농수산물을 이용한 축제를 구상중에 있으니 연구용역에 참고할 것
 - 관광센터는 기존의 협회, 조직을 활용하였으면 좋겠음

TF 및 보고 회의록

-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조직합병은 장단점이 있음. 연구 분야와 행정 분야가 합쳐진다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이라 판단
 - 소규모 영세농가 활성화 부문은 좋은 의견이니 과제에 반영할 것
 - 본 용역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세분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큰 틀을 위주로 하되, 가능하다면 사업의 세분화 방안 제시할 것
 - 국내외 현황분석자료 추가할 것
 - 용역을 시작한 이유는 과학영농, 규모화, 6차산업, 농외소득,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농업의 발전을 위함임
-
- 태안군 노인회장
 - 노인 복지에서 교육이 포함된 것은 반가운 일임
 - 노인 복지의 핵심은 노인의 일자리 창출임. 타 지역의 사례를 토대로 일자리를 제시하였지만, 태안군과의 현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태안군에 맞는 노인 일자리 창출 필요함
-
- 농협 농정지원단
 - 태안의 대표적 이미지는 관광, 먹거리, 축제 임. 태안의 원주민들은 태안의 아름다움을 오히려 더 인지 못하고 있음. 이에 농협 군지부에서는 태안사랑 둘레길 체험단을 운영 중
 - 태안 둘레길의 홍보 통해 많은 관광객 유치 필요
 - 둘레길에 첫 출발지로 회귀할 수 있는 교통편 마련방안 필요

• 주민복지과장

-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 이런 상황에서 신규영농인 육성은 어려운 과제로 판단됨. 안면읍과 태안읍을 제외한 6개면은 30% 이상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에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 이러한 인구구조는 10년 후에도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실질적으로 농촌을 주도할 인력은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이라고 판단됨. 귀농, 귀촌, 귀향자는 대부분 영농을 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들어온 경우보다는 도시생활에 실패해서 오는 경우가 많음. 귀농, 귀촌, 귀향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을 활성화하기보다 농업·농촌을 주도해 나갈 기존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어촌의 구조조정 방안 마련 필요
- 가공, 특화사업육성은 신규영농인을 통해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에 노인들이 참여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마련 필요
- 노인일자리 창출 전담조직에 시니어클럽이 선정되어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 대부분 1차산업 생산부문에 투입되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예상. 다양한 사업개발 필요

• 태안군 여성농업인회장

- 생산에 어려움은 없으나 유통에 문제가 많음. 대부분 산지수집상에 헐값에 판매하고 있기에 소비자에게 비싸다는 인식이 있음
- 로컬푸드 직판장 등은 소농위주. 중농, 대농은 홈쇼핑 이용방안 마련 필요. 태안군 자체에서 홈쇼핑 업체와 연계하여 농산물 판매방안 마련 등 판로확보방안 마련 필요

• 쌀 전업농회장

- 분야별 실무간담회 개최하여 애로사항 구체적 해결방안 모색마련 자리 필요함

TF 및 보고 회의록

[사진 자료]



제 3 장

읍면별 현장조사

제1절 고남면

제2절 안면읍

제3절 근흥면

제4절 남면

제5절 소원면

제6절 원북면

제7절 태안읍

제8절 이원면

제 1 절 고남면

1. 일시 : 2014. 9. 29(월) 14:00~16:00
2. 장소 : 고남면사무소 면장실
3. 참석 : 총발연 연구진(이관률, 조영재, 강마야, 김종화, 여민수), 부면장, 산업계장, 주민계장, 군청담당자 등 총 9명
4. 주요 의견

[생산]

- 고남면의 가장 큰 특징은 청정지역이라는 것임
- 고남면은 수도작 및 호박 고구마, 고추가 많이 생산됨. 마늘은 태안군 전역에서 재배되는 것과는 다르게 양이 많지 않음
- 마늘 면적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난지형을 많이 재배했으나 병충해 및 연작장해의 영향으로) 고구마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간척사업으로 인한 수도작이 증가하고 있음
- 한우농가가 약간 있으며 젖소는 소수 사육하고 있음. 과거 두산개발이 목장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철수한 상황임
 - 방목을 위한 초지는 조성이 되어 있지만 진드기 피해로 인해서 기업에서 현재 받을 뻔 상황
- 고남농산 김남영 대표가 호박고구마를 처음 태안군에 들여와서 종자보급 등을 하고 있음
- 고남면은 안면읍보다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덜 진행되어 있고 젊은 사람이 그나마 많은 편임
-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주민은 약 50%

읍면별 현장조사

- 담배수확을 끝내고 겨울철 휴한기를 이용하여 냉이재배를 많이 하고 있어 농가소득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고추재배 농가들은 밭의 한켠에 단호박 재배를 시작하고 있음

[유통 및 가공]

- 고구마의 경우 농협계통출하50%, 개별판매 50%의 비중임. 개별판로는 인터넷 및 개인거래 임
- 고구마 성출하기에는 우체국 택배 물량이 1일 약 400건 가량 될 정도로 지인 및 개인거래가 많이 있음

[농촌 및 경관]

- 안면읍과 고남면과의 친밀도는 높은 편이며, 안면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 약 20%는 고남면까지 방문을 하고 있음
- 어촌의 경우 큰 틀에서 같이 살자는 의식보다는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의식개선의 의지가 약함
- 해수욕장이 4곳이 있고 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함. 바람아래 해수욕장, 장산포 해수욕장이 유명하지만 시설이 빈약한 상황(개인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 군수 방문 시 태안에서 가장 깨끗하고 유명관광지가 될 만한 해수욕장 조성을 건의
- 농어촌 경관 개발은 수자원보호구역 및 국립공원부지 때문에 힘든 상황
- 고남면 장곡리 근역에 소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음. 소나무 정비사업을 통해서 관광 상품화를 할 여건이 있음
- 지포저수지의 연꽃 및 바다낙시와 민물낙시를 겸할 수 있는 곳 등 여러 가지 자원을 이용한 관광 상품화가 필요함
- 전국 유일의 패총박물관이 있음

[복지]

- 지역 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은 의료 및 교통부분임. 고령화는 되었음에도 의료혜택이 너무 부족함
 - 저녁 7시만 넘으면 대중교통이 다 끊기고, 보건지소는 있지만 엠블런스 차량이 한 대 없을 정도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상황임
- 자산보유가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인구가 적음
-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장, 약국, 슈퍼 등 기초시설이 부족함. 상권이 존재하지 않고, 관광객을 겨냥한 최소한의 식당정도가 있음
- 면사무소에서 작년부터 주민 복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문예교실, 컴퓨터, 풍물놀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있지 않지만 단합심이 매우 좋음
 - 복지교실의 경우 강사료가 적어 강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임
- 솔바람길이 있긴 하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음. 오히려 주민들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
-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연은 안면읍 지역과 많이 밀접함
- 지역에 밴드동아리(혼수상태)가 있어서 매년 가을에 7080콘서트를 함
- 안식일교회 교인이 많이 있어 염소, 소, 양, 돼지고기, 닭고기소비가 적음
- 천주교박해 피난지(다락골)
- 패촌박물관이 있지만 볼거리가 많이 있지 않음. 주말 프로그램을 이용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수산업]

- 가두리 양식을 이용한 바다낚시와 연계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육성이 된다면 근처 펜션과 농산물 구매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
- 마을마다 어촌계는 모두 형성되어 있음

읍면별 현장조사

[기타사항]

- 바다를 3면에 끼고 있어서 수산물이 농산물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함. 어업 분야에 대해 일부분이라도 반영하였으면 함
- 연육교 개통 시 대천항과의 거리가 약 15분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천항에 비하여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남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됨
 - 고남면은 스쳐가는 곳이라고 인식 될 우려가 있음
 - 고남면에서 고민은 하고 있지만 면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군 차원에서 나서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임
- 영목항 주민이 가장 우려스러워 하는 사항은 원산도 종합개발에 대한 반사피해에 관한 사항임
 - 또한 주민의 의식부족으로 영목항의 환경이 매우 좋지 않고, 공유수면지역이 많기 때문에 정비 자체가 법제도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음(수자원보호구역 및 국립공원이 위치함)
- 교통편이 태안읍 쪽보다는 홍성군에 가까워 생활용품 등 물건을 구입하러 홍성 쪽으로 많이 나가는 상황
- 유명인 : 고남농산 김남용, 선미식품(까나리액젓) 전병연, 진금철

제 2 절 안면읍

1. 일시 : 2014. 9. 29(월) 10:00~12:00
2. 장소 : 안면읍사무소 읍장실
3. 참석 : 총발연 연구진(이관률, 조영재, 강마야, 김종화, 여민수), 안면읍 이장단
협의회장, 안면읍장, 안면읍 산업계장, 태안군청 담당자 등 총 9명
4. 주요 의견

[생산]

- 안면읍은 고추, 벼(간사질 토양의 영향), 호박고구마, 마늘을 많이 재배하고 있음
- 고추는 전국적으로 재배기술에서 우수함
 - 터널재배 등 시설재배 및 해무 등의 영향으로 병충해의 피해가 적음. 재배면적은 적지만 기술이 우수하여 단수가 높고, 가격 또한 600g 당 1,000원 이상 받을 정도로 좋은 가격을 받고 있음
 - 고추의 노지재배와 하우스 재배 비율은 7:3가량임
 - 태양초 비율은 35%, 유기농 많이 시행하여 소매가격은 kg당 약 5,000원 이상 받고 있음
 - 유기농 시행비율은 많지만(대부분 인증을 하고 있음) 고령으로 인해 인증을 꺼려하는 농가가 많음 : 시설재배는 대부분 유기농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고추재배면적은 정체상태, 노지에서 하우스 전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음
- 환경적 요인(황토)으로 인하여 구근작목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음
- 육지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큰 기상재해 없이 농사에 적합한 기후임

읍면별 현장조사

- 태안은 한지형마늘을 주로 하지만 안면읍 같은 경우는 95% 이상 난지형 마늘을 재배하고 있음(어업과 겸업으로 비교적 재배가 수월한 난지형 마늘을 선택)

[유통 및 가공]

- 완제품의 가공은 전무하며, 고추는 안면농협에서 수매를 통해서 가루 형태로 출하하고 있음
- 농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저장창고 부족으로 인한 홍수출하 때문에 발생하는 가격 하락임
- 수확은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잘하고 있으나 농협출하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실정
- 고추, 고구마, 벼의 유통
 - 농협수매(15% 미만 : 최상품), 직거래(10~15%), 수집상(65%이상), 자가소비(5%)
- 안면읍 28개리에 대하여 1사1촌을 맺어주었으나,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된 상황
- 고령화로 인한 유통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음
- 생산자 단체의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고령화 등)외부 기업의 참여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어촌계 등은 활성화가 되어 있음)
- 친목계 성격의 작목반은 소수 있음
- 안면농협-고추 가공공장 및 고구마 세척공장 가동함
- 리솜리조트에 농산물 판매장 면적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됨

[농촌 및 경관]

- 귀농인구는 많지 않고, 귀촌인구는 약간 있음
- 귀촌하는 사람은 대부분 숙박업,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음
- 체험마을 3곳이 활성화 되고 있음-대하도 어촌체험마을, 병술마을, 기루지마을
- 체험마을에 관련하여 지원이 이루어져 주민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 관광객은 많이 오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등 각종 규제가 많고, 도로 및 주차 등 제반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외지인들의 관광, 숙박업 위해 많이 들어오면서 원주민간의 약간의 갈등이 있음
 - 외지인의 숙박업소(펜션 등) 건설로 인하여 경관이 많이 훼손되고 있음.그나마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규제로 인하여 보존되고 있음
-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이 가장 큰 현안, 23년째 보류중임
- 펜션의 경우 비수기에도 운영이 잘 되는 편, 농가단위 펜션운영은 없고 대부분 외지인이 운영하고 있음

[복지]

- 공공근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자치센터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고령화로 인하여 활성화에 문제가 있음
- 복지부문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육, 의료, 교통임
- 상하수도 문제 : 지하수에서 좋지 않은 성분이 많이 나오고 있어 식수에 문제가 있는 상황(10개 검사항목 중 7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옴)

읍면별 현장조사

[수산업]

- 대하, 꽃게, 전복, 해삼이 주로 나오고 있음
- 맨손어업으로는 바지락, 낙지
- 섬이다 보니 대부분 어촌계를 가지고 있어서 바지락 등을 하고 있음. 바지락의 경우 80대 노인이 작업을 하여도 1일 8만 원 이상의 수입을 벌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원이라 할 수 있음

[기타사항]

-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지만, 용역을 해서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
- 국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농업·농촌 발전정책은 정작 시·군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시·군이 주체가 되어 각 시·군의 실정에 맞는 정책 발굴이 중요
- 안면읍의 경우 농업-어업-관광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관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 기존 안면읍에서 고남면이 분리되어 고남면, 안면읍으로 나뉨
- 농업부문에서 특별한 사람
 - 창기2리 장영창(유기농), 농협 문용철 전무(유통 및 친환경 전문가)

[사진자료]



제 3 절 근흥면

1. 일시 : 2014. 9. 30(화) 13:00~15:00
2. 장소 : 근흥면사무소 면장실
3. 참석 : 총발연 연구진(이관률, 조영재, 강마야, 김종화, 여민수), 면장, 산업계장, 산업계 담당직원, 군청담당계장 등 총 9명
4. 주요 의견

[생산]

- 근흥면의 주 생산품목은 마늘, 생강, 두류, 고추, 수도작 임
 - 고추재배는 하고 있지만 다른 읍면보다는 적게 재배하는 편
 - 마늘 후작으로 콩, 콩 후작으로 배추 재배를 하고 있음
- 재배면적은 크게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은 없지만 고구마 면적이 약간 늘어나고 있고, 연작장해 문제로 생강재배가 다소 줄어든 상황
- 마늘은 한지, 난지형 모두 재배하고 있음
- 가의도에서는 6쪽마늘 종구를 생산하고 있음
- 가격 안정성 때문에 생산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음
- 1농가당 평균 1ha의 재배면적
- 면단위에서는 농업인구가 가장 많음(2천 명)
- 3면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농업과 어업을 겸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
- 농촌보다 어촌이 발달되어있고, 농촌과 어촌의 소득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산남 작목반이 있으나 활성화 되지 않음
- 휴경지는 마을 자체적으로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음, 빈집은 다소 있고 면에서 철거를 지원하고 있음

[유통 및 가공]

- 마늘은 대부분 중간상인과의 거래가 있으며, 산수향 브랜드 납품도 있음
- 농협에 납품하는 물량은 전체의 약 20%가량이며, 산수향 납품은 약 30%가량 하고 있음
- 두류 또한 대부분 중간상인을 통해 유통하고 있음
- 특별한 직판장은 없지만, 고구마 수확철 도로변에서 한시적으로 직판하고 있는 농가가 소수 있음
- 벼 건조장을 제외하고는 가공시설이 전무한 상황

[농촌 및 경관]

- 용신리 어촌체험마을, 신진도 2구 체험마을 등에서 체험을 하고 있음
- 안흥염전에서 소금 생산량이 상당량 되고, 안면도, 이원면 보다 규모에서 앞서고 있음
- 마을 수는 적지만 인구는 많아서 과소화마을은 없음
- 귀농농가는 많지 않지만 일부 있음
- 국립공원으로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경관, 환경오염은 걱정 없음
- 주요관광지 : 안흥성, 용신리 어촌체험마을, 태목사, 남도팽이갈매기 서식지, 유람선(세월호 사건 이후 타격입음), 오토캠핑장
- 용신리 어촌체험마을에 학생을 상대로 운영 중이나 활성화 되지 않음

읍면별 현장조사

- 지방도 도로망 4차선 확장공사가 가장 시급한 현안, 현재 타당성 조사에 대한 예산만 일부 수립됨
- 해수욕장 3개와 골프장 2개가 있어서 관광은 많이 있지만 소음 문제 때문에 관광객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복지]

- 초등학교 학생 60여명, 우체국, 농협 정도의 시설만 있을 정도로 시설이 열악함-15분가량 자가용 이용 태안읍에서 생활권 형성
- 2004년부터 주민복지센터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2개소가 있지만 치료이기 보다 감기약 정도의 처방만 받는 상황
- 신진도에서 태안까지 15Km가량 거리지만 도로가 1곳 밖에 없어 응급 상황 발생 시 어려움이 있음
- 의료, 문화시설이 미흡한 상황
 - 공연, 영화관람 등은 수요가 있지만 서산 쪽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임
 - 전문병원이 없고 의료원 형식의 병원만 있음
- 남면에 국방연구소 무기 시험 발사장이 있어서 소음피해, 교통문제 등 피해가 많음
 - 소정의 장학금과 주민잔치 개최 등의 보상을 하고 있음
 - 1주일에 5일가량 훈련을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소음피해를 받고 있음
 - 발사장 주변 땅은 삼성에서 소유하고 있음. 기존에 놀이공원 등으로 개발하려 하였으나 소음피해 때문에 사업을 접음
- 대중교통에 대한 큰 불편사항은 없음

[수산업]

- 어선어업보다는 바지락 등 양식어업임
- 낚시어선 손님 다수
- 해양수산부 소속 수산물연구센터가 있음
- 가의도-신진도 사이에서 침몰선에서 도자기 등 유물이 발굴되고 있음

[기타사항]

- 농촌지역에 시설을 지어서 소득을 마련하는 방법보다는 주민복지, 역량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사진자료]



제 4 절 남면

1. 일시 : 2014. 9. 30(화) 10:00~12:00
2. 장소 : 남면사무소 회의실
3. 참석 : 총발연 연구진(이관률, 조영재, 강마야, 김종화, 여민수), 부면장, 산업계장, 대표이장, 지역발전협의회장, 군청담당계장 등 총 10명
4. 주요 의견

[생산]

- 남면의 재배품목은 고추, 마늘, 생강, 인삼, 화훼이며 증가, 감소는 거의 없고 생산량은 유지중임(생강은 다소 줄어들고 있음)
- 생산량이 많지는 않지만 품목은 10가지 이상 재배하고 있음. 이중 판매하는 것은 고추, 마늘, 인삼, 생강, 화훼 정도임
- 화훼작목반이 활성화 되어있음
 - 태안, 원북, 근흥, 남면이 화훼를 하고 있으며, 남면은 태안군 다음으로 재배면적이 많음
 - 10년 전과 화훼가격이 변동이 없어 어려운 면이 있음
- 마늘은 난지, 한지형 혼합해서 재배하고 있음
- 생강의 경우 계절적 요인으로 구근비대가 좋은 경상도 쪽으로 많은 면적이 이동하고 있음
- 과거 태안에서는 안면도 고추가 유명했으나 현재 터널재배 등 재배기술의 발달로 기술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임
- 인삼재배농가는 21호로 약 21ha를 재배하며 외지 사람이 많이 경작함
- 고추 후작으로 한지형 마늘을 식재하는 농가가 소수 있고, 땅콩재배농가도 약간 있음

- 최근 휴경지가 증가하지 않았으나, 농사짓기를 포기하면서 올해는 휴경지 증가현상이 다소 나타나고 있음
- 농협주도로 우리밀 경작을 계획하고 있음. 농가의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편임 (농협에서 파종, 수확, 판매까지 맡아서 할 계획)
 - 취지는 좋지만 수확 및 파종장비가 부족한 상황
 - 재배면적은 많이 확보한 상황
- 달래 씨 생산농가 있음(양잠리)

[유통 및 가공]

- 한지형 마늘은 산수향 브랜드로 납품하며, 난지형은 정부수매, 가락시장, 수집상, 농협 수매를 통해 납품하고 있음
 - 수집상으로 납품하는 경우가 80~90%가량으로 대부분이며, 난지형 마늘은 작목반 구성조차 되지 않음
- 고추의 경우 계약재배 30%, 수집상 20%, 직거래 50%의 비중으로 유통되고 있음
- 농협 출하 시 선별에 대한 품삯이 없기 때문에 농협출하에 부담이 있음. 수집상의 경우 선별작업 없이 납품하기 때문에 선별에 대한 부담이 없음
- 서산과 태안은 겹치는 작목이 많이 있으나 공동마케팅에 어려움이 있음
 - 지자체간의 협의가 되지 않음
- 가판대 직거래에서는 고구마, 마늘, 생강한과 품목이 많이 있으며, 관광객이 관광 후 나가는 길목에 많이 있으나 외지 농산물을 파는 경우가 있어 우려됨
- 국화, 튜립은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였으나 가격상황에 맞춰서 국내출하로 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출은 어려운 상황
- 남면농협에 벼건조장, 깻마늘공장, 참기름, 들기름, 엿기름 가공시설이 있음. 참기름, 들기름은 청와대로 납품할 정도로 품질이 좋음

읍면별 현장조사

- 농민들의 바램은 생산한 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 유통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한 상황임
- 농산물 선별기를 설치 할 수 있다면 품삯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임

[농촌 및 경관]

- 폐교부지를 이용하여 당암한과라는 업체가 생겨 각종 체험활동을 하고 있으며, 숙박 등도 실시함
 - 맵쌀, 찹쌀, 콩, 깨 등 많은 농산물을 모두 남면에서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당암한과를 통해 주민 고용창출(30명)효과도 있음
- 태안읍과 남면 사이에 위치하여 있고, 생활권은 태안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흥성 또한 많이 가고 있음
- 대표적 농촌체험 자원은 그린리치팜, 팜카밀레가 있음
- 봄철에 백합과 튜립축제를 하고 있음
- 별주부 마을에서 독살체험을 하고 있으며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체험마을임. 그러나 최근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고 있음
- 쥐라기박물관은 학생들의 체험활동이 많음
- 대표이장의 추진으로 동대문 부녀연합회와 자매결연을 맺었음
 - 최근 동대문 부녀연합회와 체험활동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버스동원에 자금 문제가 있어 답보상태,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
- 남면 뿐만 아니라 태안군의 성장동력은 농업과 어업임. 바다의 경우 경관또한 수려함
 - 바다 관광을 하고 나서 보고 느낄 콘텐츠가 없음. 바다를 이용한 문화상품, 스토리텔링 등의 개발을 통한 성장동력 개발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해외의 사례처럼 랜드마크가 하나도 없음
- 청포대, 곰섬해수욕장 등의 관광자원이 있음

- 귀농귀촌 인원은 많지 않음
 - 면사무소 차원에서 문의는 수차례 받긴 하였지만 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많지 않음

[복지]

- 외곽도로의 건설로 시내권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기존 상권이 무너지고 있음
- 달산포 체육공원-축구장2면, 야구장2면 등 종합운동장 개념으로 남해의 사례처럼 프로팀의 전지훈련장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현재 규모가 줄어든 상황임
 - 남면의 체육대회에 이용하고, 전지훈련을 유치한다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문화복지 부문에서 특별히 불편한 부분이 없음
- 주민자치센터는 6년째 시행되고 있고, 댄스, 노래, 종이공예, 풍물, 한글교실 등5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노인들의 참여도가 좋음
- 군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농어촌 이동복지관을 운영중이며, 노인진료, 식사 등 지원하고 있음

[수산업]

- 뱀어포와 멸치 가공을 가정집에서 하고 있음
- 신원리에서 고소미라는 브랜드로 소금 가공을 하고 있음
- 지역발전협의회장이 자염개발,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음

[기타사항]

- 농업자원 : 허브농원 팜카밀레(수목원, 연꽃 등 박정철)

제 5 절 소원면

1. 일시 : 2014. 10. 1(수) 14:00~16:00
2. 장소 : 소원면사무소 면장실
3. 참석 : 총발연 연구진(이관률, 강마야, 김종화, 여민수), 읍면장, 산업계장, 이장단 협의회장, 군청담당자 등 총 8명
4. 주요 의견

[생산]

- 전형적인 농촌지역이 아닌 어업과 겸업을 많이 하고 있음(60~70%). 어업만 전업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10% 미만)
- 어업에 비해 농업만 하는 농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어려움
- 수도작, 마늘, 고추, 생강, 고구마 생산 중
- 마늘 작목반-22개의 작목반, 고추-작목반 구성이 되지 않았으나 농촌지도자 모임 등에서 주축으로 기술지원을 받고 있음
- 마늘은 한지형, 난지형 모두 재배를 하고 있지만 재배 및 수확의 어려움으로 난지형 마늘이 많이 있음
- 호박고구마 재배면적은 증가하고 있지만 마늘, 고추, 생강 등은 일손 부족으로 면적이 줄어들고 있음
- 소득증대를 위해 특화작목을 도입하고 싶어도 고령화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어업의 경우 젊은층이 다소 있지만 농업의 경우 젊은층이 거의 없음
- 친환경 인증은 거의 없음

- 1개 마을당 4~5명의 귀농인이 유입되고 있음
- 고추의 경우 약 40%가량의 농가에서 터널재배를 하고 있음
-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 구입으로 농가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음
- 농기계 임대비용은 저렴하지만 빌리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일시에 몰리는 현상 때문에 사용이 어려움
 - 사업을 농협에서 맡아서 한다면 빌리러 가는 거리 등 이용에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수리시설은 모자라지만 간척지가 있어서 미질이 우수함
- 수시시설 부족 때문에 저수지 건설을 건의 중에 있음(현재 대하양식장 운영 중에 있는 부지)
- 재배작목 교체로 농민의 소득을 올릴 필요가 있음

[유통 및 가공]

- 마늘, 고추는 상인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농협에서 일부 구매 함(40% 가량)
- 자매결연, 인터넷 판매 등 직거래 판매 또한 전체 거래량의 약 20% 가량 이루어지고 있음
- 가공, 저장, 직판시설은 없음(마을별로 많이 있는 양곡저장창고도 없음)
- 수집상은 마늘, 고추 등의 시세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 선금을 미리 지급하고 계약을 해서 많은 이득을 취함
- 저장시설의 부재로 인해서 출하기에 가격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음
- 캠핑, 펜션 이용객들에게 직판장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판매하고 싶지만 준비를 다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는 어려운 실정임
- 태안, 안면농협이 가장 크고 근흥, 소원, 원북, 남면농협은 매출, 흑자 등이 비슷함

읍면별 현장조사

[농촌 및 경관]

- 산골 등을 제외하고는 휴경지가 거의 없으며, 빈집 또한 없음
- 법산리 연꽃체험마을, 파도리 바지락체험마을 등이 있으나 농촌쪽에는 거의 없음(마늘캐기체험 제외하곤 전무함)
- 특별한 관광지가 없어도 해변가 주위에는 펜션 등이 있음
- 파도리 일대에서 SBS 김병만의 즐거운가(家) 프로그램 촬영하고 있음
- 태백길 관광객 증가하고 있음
- 대부분의 해변엔 독살체험장이 있음

[복지]

- 복지프로그램은 풍물, 난타, 차밍댄스, 배드민턴, 노래교실을 운영 중
 - 풍물은 전국 주민자치단체 대상, 충남대회 차상 등을 받음
- 1년에 한번씩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음
-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가 있어서 의료에 큰 불편은 없음
- 야간에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는 어렵지 않음
- 고등학교는 현상유지가 되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폐교위기임

[수산업]

- 바지락의 경우 태안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음
- 마을 공동어장에서 1일 작업(4시간)을 하면 1kg당 3천 원씩 소득을 올리며, 보통 60kg 이상 수확을 함
- 바지락은 4월~12월까지 수요처의 여부에 따라 수확을 함. 1년에 100일 가량 작업을 하고 있음

[기타사항]

- 귀농자들의 지대는 논은 5~7만 원, 밭은 15만 원, 바닷가쪽은 50만 원에 형성됨
- 농업 전문가 : 소원농협 조합장, 이장단 협의회장, 어촌계 연합회장 정종호, 법산 어촌계장 조한왕, 선주협회장 이은관, 농업지도사회장 윤중선
- 근흥면과 정서적으로 친밀함
- 만리포 관광협회, 해수욕장별 번영회 조직됨
- 주민들간 공간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왕래가 많이 있음

[사진자료]



제 6 절 원북면

1. 일시 : 2014. 10. 1(수) 16:30~18:00
2. 장소 : 원북면사무소 면장실
3. 참석 : 총발연 연구진6(이관률, 강마야, 김종화, 김양중, 이민정, 여민수), 면장, 산업계장, 산업계 직원, 군청담당자 등 총 10명
4. 주요 의견

[생산]

- 주요 농산물로는 마늘, 고추, 쌀(황금노을쌀, 간척지쌀), 버섯(표고, 느타리), 생강, 달래, 황금콩 채종단지
- 쌀은 110억, 고추 30억, 달래 15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
- 133ha의 마늘 재배면적을 갖고 있고, 대부분 난지형을 재배함
- 한지형 마늘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난지형 마늘 재배면적은 정체
- 고추는 노지재배에서 하우스 재배로 재배방식이 변경되고 있음
- 고구마, 감자를 재배하긴 하지만 많은 편은 아님
- 친환경 농가가 많지는 않지만 내기리, 청산리에서 몇몇 농가가 쌀을 위주로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음
- 주요 작목별로 작목반이 모두 구성되어 있음(총 8개 작목반)
- 원북, 이원, 소원면 쪽에는 수리시설 부족으로 인한 가뭄현상 발생
- 원북(255ha)-이원(453ha)간척지가 있지만 가뭄으로 인하여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올해의 경우 90% 이상 망침)
 -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조성을 하였고 자연히 농어촌 공사로 관리 주체가 넘어 가야 하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음

- 달래는 원북면의 독특한 시설작목으로 콩 후작으로 들어가며 비가림 시설재배가 많음
 - 11월~3월까지 출하됨, 농한기에 수확을 함
 - 기존 콩 후작으로 한지형 마늘 재배가 많았지만 재배의 어려움 때문에 달래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

[유통 및 가공]

- 마을 공동 저온저장시설이 곳곳에 있음
- 황촌2리 최순영 부녀회장-쌀, 생강, 울금 등 가공하는 황골손 맛집(조청 제조)
- 갈두천 마을 - 두부, 된장, 고추장 등 제조하고,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구성
- 발전소 노동인력이 약 4천 명 가량 되고, 발전소 직원들로 하여 농산물 소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다른 유통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음
- 원북농협에서 운영하는 황금식품에서 청국장, 된장, 두부 등을 가공하여서 서울권에 있는 회원 농협에서 납품하여서 수익을 올린 경험이 있었지만, 대기업과 경쟁에서 밀려난 상황
- 원북농협에서 고추, 쌀, 달래 등의 수매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음
- 원북농협에서 달래는 100%, 마늘은 80% 가량 수매하고 있음
- 홍고추 위탁 가락시장 판매, 건고추는 정부수매 하고 있음

[농촌 및 경관]

- 갈두천 마을에서 체험은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기료, 인건비 등 운영비 때문에 힘들 것이라 예상됨
- 신두리 사구와 해변길이 연계되어 관광객이 소수 증가함
- 원북면의 농촌관광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은 볼거리는 있지만 볼거리와 연계한 먹거리가 부족함

읍면별 현장조사

- 주민자치위원회 주도로 국화축제를 작년부터 개최 하였고, 반응 좋음
- 원북면은 태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낙후된 지역에 속함
- 귀농귀촌 - 하루 1~2건은 농지취득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귀농귀촌 인구가 소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바닷가 쪽 인구가 많고, 농촌 쪽은 300평 가량의 부지에 노후를 보내기 위해 오는 사람이 많음

[복지]

- 화력발전소를 드나드는 화물 차량으로 인한 도로 기반시설 취약, 교통사고 발생, 석탄재 운반으로 인한 오염 발생
 - 도로파손, 브레이크 석면,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전소 입지로 인한 피해만큼 큰 상황임
-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감기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
 - 보건진료소에도 역시 감기환자가 늘어나고 있음
 - 측정결과 전자파가 기준치 이하여 많이 발생하진 않지만 실제로 주민이 겪는 피해는 있음
- 발전소 지역 자녀에게 취업 시 10%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지만 현실상 10%의 가산점을 받더라도 타 지역사람과 경쟁에서 어려운 상황
- 면 소재지에 사택이 있긴 하지만 살 수 있는 곳은 하나로 마트 한 곳임
- 2008년부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올해부터 9개의 프로그램에 주민의 참여율이 높음(작년까지는 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됨)

[기타사항]

- 농업 등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도로 정비가 먼저 되어야 할 숙원사업임
- 원북면과 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은 태안읍

제 7 절 태안읍

1. 일시 : 2014. 10. 1(수) 10:00~12:00
2. 장소 : 태안읍사무소 읍장실
3. 참석 : 총발연 연구진(이관률, 강마야, 김종화, 여민수), 읍장, 산업계 직원, 군 청담당자 등 총 7명
4. 주요 의견

[생산]

- 마늘, 고추 등은 기본적으로 생산하고 있음
- 호박고구마 농가는 있지만 많지는 않음
- 태안읍뿐만이 아닌 농촌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귀농자 위주로 블루베리 농사를 많이 짓고 있음
 - 가격도 1kg당 3만 원~3만 5천 원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소득 도한 높은 편임
- 특이한 농가로서, 기존 장미재배단지에서 제주도의 특산물 이라고 여겨진 황금향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음
 - 한 농가로 시장개척이 힘든 상황임
 - 성목이 되어 수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4년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업을 꺼리는 상황
- 귀농한 농가로서 다육식물을 재배하는 농가 있음-부부가 서울 공판장으로 직접 판매까지 하고 있음
- 백합농가는 직접 종구를 생산까지 하고 있어 로열티 문제에서 경쟁력은 있지만 생산비 지원 등이 없어 어려움이 있는 상황

태안군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 농업기술센터 부근 야산 개발지에서 1년에 3회 가량 알타리무 재배를 하고 있음
 -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아 갈아엎는 경우 또한 있지만 3회 중 1회만 성공한다면 수익성이 있음
- 태안군 전체에서 태안읍과 남면이 화훼분야에서 활성화 되어 있음
 - 1989년도 전·후 남면 농가가 제주도에서 기술을 배워 가지고 전파한 것으로, 그 부근 국가의 지원 또한 많아서 화훼농가가 많이 늘어남
- 기술력이 높은 사과재배농가에서 신세계 백화점과 계약하여 사과 한 알당 만원에 거래되는 농가가 있음
- 일조량이 많고,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사과, 화훼 등의 품질이 좋음
- 화훼 재배농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난방비와 로열티 문제임
 - 업종의 전환보다는 난방비 문제 해결이 가장 숙원으로 생각함

[유통 및 가공]

- 전통시장에서 채소 등의 거래가 있지만 태안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아닌 가락시장에서 공급받는 문제점이 있음
- 상설시장 상인회(전통시장 인정), 서부시장 상인회(전통시장 인정), 중앙상가 번영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기타사항]

- 농업자원 : 황금향농가 임대근, 다육농장 이용신, 백합 김종석, 호접란 최원석, 백합연구단지

읍면별 현장조사

[사진자료]



제 8 절 이원면

1. 일시 : 2014. 10. 2(목) 10:00~12:00
2. 장소 : 이원면사무소 회의실
3. 참석 : 총발연 연구진(이관률, 강마야, 김종화, 김양중, 이민정, 여민수), 충북대 연구진 4명, 면장, 이장단 협의회장, 산업계장, 산업계 직원, 군청담당자 등 총 19명

4. 주요 의견

[생산]

- 이원면의 경우 마늘, 고추 콩, 벼(육지답 500ha, 간척지 570ha-원북 220ha, 이원 337ha)
- 16개 마을이 있고 약 70%가 농업에 종사함(반농반어의 형태)
- 이원간척지의 경우 염분으로 인한 피해로 상당 부분이 고사된 상황
 - 경지면적에 비해 담수호가 적고 태안화력의 오염된 물이 담수호로 유입이 되어 제염 작업이 어려운 상황
- 고추 비가림 시설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는 거의 없음
 - 소규모로 재배를 하다 보니 시설비용 부담으로 시설재배를 꺼리고 있음
- 최근 고추면적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마늘은 면적을 유지하고 있음
 - 한지형마늘(6쪽마늘)이 종구비가 높고 수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난지형 마늘로 바뀌고 있는 상황임
 - 고추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면적에 콩을 심거나 휴경을 하고 있음
- 호박 고구마는 포지3구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달래는 당산 1구에서 2농가가 생산하여 원북농협에 출하하고 있음
-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마을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읍면별 현장조사

[유통 및 가공]

- 고추, 마늘, 6쪽마늘 작목반, 콩, 고구마 품목에 대하여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음
 - 마늘의 경우 마을마다 작목반이 다 구성되어 있음
 -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지만 유통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실질적으로 대부분 지원을 받기 위하여 작목반을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고추, 마늘은 농협에서 가격을 관리하기 때문에 상인의 가격 횡포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농협과 계약재배를 하고 납품을 함
 - 때에 따라서 수집상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수집상에 판매함
 - 농협에 계약했지만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사유서를 제출 한다면 특별한 패널티는 없음
- 쌀은 농협에서 80%이상 수매를 해줌
-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은 전무한 상황
- 저온저장고는 개인별로, 마을별로 약간 있음
- 영농법인 100개 이상, 사회적 기업 1개 있음
 - 사회적 기업 : 포지 2구, 한과, 고구마, 말린 망둥어 판매, 못자리 사업

[농촌 및 경관]

- 태안군에서 이원면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함
- 태안화력 가동 후 원북보다 훨씬 낙후되어 가고 있음
- 면 소재지에 새로운 모습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이 문제임
- 관리1,2구(벚가리 마을) 권역사업 진행 중(35억 원 지원)이고, 당산 4구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 중

태안군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 솔향기길 - 처음엔 기름유출 후 기름 제거를 작업 시 이동을 위해 길을 낸 것으로, 후에 군의 지원으로 솔향기길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함
 - 주말에는 하루에 버스가 30~40대가 올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음. 이에 주차 문제에 어려움이 있음
 - 태안화력에 90호기 준설에 따라 2017년도 상반기 까지 120억의 특별지원금이 배정될 예정임. 이에 40억 가량 투입을 하여서 주차장 및 관광객 편이를 꾀할 계획
- 자연적 아름다운 경관은 갖고 있지만 주변과 연계하여 특별히 발굴해내야 할 프로그램은 별로 없음
- 매년 나오리축제 개최(도자기 등 미술품 전시회)

[복지]

-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가장 문제점 이라고 할 수 있음
 - 지방도를 확장하거나 국도로 승격을 시킬 필요가 있음
 - 태안화력이 있어서 교통이 많이 붐비고 있음
- 주민복지프로그램 5개 운영 중(스포츠댄스, 풍물, 노래교실 등)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복지프로그램의 참여도가 좋음

[수산업]

- 참굴은 시험재배중이고, 굴이 지역 특산물이라 할 수 있음

[기타사항]

- 농업 인적자원 : 명지행 이장(고구마 농가), 조인상(포지 2구). 김진원 이장(내리 3구)
- 어떠한 방법이던 면 소재지를 살리는 방법이 필요함

읍면별 현장조사

[사진자료]



참여연구진

주 관 기 관

- 주관부서 : 태안군청 농정과 농촌행정팀

연 구 기 관

- 주관부서 :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 연구총괄 : 이관률 연구 위원
- 연구간사 : 여민수 연구 원
- 연구진 : 조영재 연구 위원
강마야 책임연구원
김종화 책임연구원

공 동 연 구

- 수행부서 : 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 연구진 : 백승우 교 수
김수현 연구 원

